
INSIDE
YTN
2017. Vol. 130
9
10
더 나은 내일을 전합니다

“긴박한 순간이라면,
세 글자만 기억하세요~!”



YTN 에 뉴스를 제보하는 스마트한 방법

YTN NEWS YTN 앱 제보	YTN앱을 열고, 맨 위 [제보]버튼 터치!!
전화 제보	02-398-8282(빨리빨리) / 8585(바로바로)
말하는 제보	전화 1636 눌러서 연결된 후 “뉴스제보~”라고 말하세요.
이메일 제보	8585@ytn.co.kr
홈페이지 제보	http://www.ytn.co.kr-[제보영상]-[제보하기]
트위터 제보	http://twitter.com/YTN24

더 나은 내일을 전합니다. Exclusive Tomorrow YTN

CONTENTS

09Sep - 10 Oct 2017/vol.130



IN

In Newsquare
“해직자가 오네요” 우리 모두의 복직 | 이상엽 04
3,249일만의 출근… 조승호, 노종면, 현덕수를 만나다 | 나연수 06

Exclusive Now
또 하나의 적폐, ‘대리처방’ | 양시창 08
모든 기사는 ‘발’에서 나왔다 | 차정윤 10

이 방송 궁금하다
출구가 없다, 쿵쿵 노래교실 | 김하나 12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특집 – 빈 깡통의 눈물 | 강현정 14

YTN 플러스 YTN Star
“YTN에 연예팀이 있나요?” | 김겨울 16

YTN 사이언스
“과학이 즐거운 시간, 우리가 만들어요” | 맹수지 18

YTN 기술국
“우리도 송신소가 있어요.” | 정경남 20

YTN 커뮤니케이션팀
YTN을 찾는 사람들 | 기정훈 22

YTN 객원해설위원 특별 기고
21세기 새로운 국민 국가 모델, 스웨덴을 가다 | 유용화 24

SIDE

홍경한의 아트스퀘어 _ 사공 우 작가
26 홍경한 | 삶의 ‘노래’, 공존의 ‘소리’

앵커의 변신 _ 박유라 앵커
28 김여진 | 찬열 누나가 아니라 YTN 앵커 박유라 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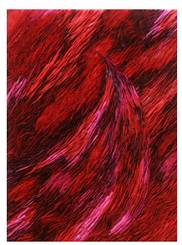
유석현의 클래식 속으로 _ 브람스 ‘교향곡 제4번’
30 유석현 | 쓸쓸함과 고독, 그리고 체념

최광희의 영화가 그린 세상 _ 택시운전사
32 최광희 | 〈택시 운전사〉는 어떻게 천만 영화가 되었는가

김여진 앵커의 〈Number &Talk〉 _ 소리꾼 장사익
34 김여진 | 인생을 노래하는 소리꾼 장사익

YTN 이모저모
38 YTN 이모저모





표지 사공 우 作 | 생성과 소멸, 117 x 80cm, korean paper & mixed media on Canvas, 2010

작가 사공우의 〈삶의 노래〉 연작은 제목만큼이나 친근한 느낌을 심어준다. 그 익숙함은 역사와 함께해온 ‘한지’라는 재료가 그렇고, 나무와 같은 화면 속 자연물들, 그리고 비례, 흐름 등의 조형원리 탓이리라. 그의 작품에는 질과 형, 소재와 재료라는 조형의 새김을 넘어선 인간 삶에 관한 추적이 녹아 있다. 여기서의 추적은 우리 내면에 안주된 그 무언가를 건드리는 조건이자 지향점일 수 있다. 작업 과정의 고단함이 증명하듯 시간을 무대로 켜켜이 쌓아올린 지난한 흔적 또는 내적 심상의 세계를 향한 표상 등이 삶의 미로 (迷路)를 빠져나와 그 궁극성을 암시하는 흔적들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발행인 김호성 편집장 최재용(커뮤니케이션팀) 03926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T 02.398.8000 제보 02.398.8585 디자인·인쇄제작 아이아트플러스 02.2272.9807



"해직자가 오네요" 우리 모두의 복직

세 선배가 돌아왔다. 3249일, 9년 만이다. 최선을 다했지만 막아내지 못해 멈춰버린 차디찬 시간의 굴레 속에, 우린 누구나 터부시하고픈 해직이란 단어에 어느덧 익숙해져 있었다. 익숙하다는 것은 각인이었다. 뭉툭해지지 않으려 순간순간 스스로를 다잡았다. 우리의 시간을 멈추게 한 그날을 잊지 않았다. 잘못된 것들이 아직 바로 잡히지 않았기에 더 날카롭게 기억했다. 밖에 있으면서 한순간도 언론인임을 놓지 않던 선배들을 위해서라도 부끄러울 수 없었다. 우린 그렇게 오늘을 맞이했다. 앞서 복직한 세 분을 합쳐 여섯 기자의 해직사태가 비로소 종결된 것이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특별한 기쁨이었다.

이상엽 | 보도국 영상취재1부

노조 집행부로 복직행사 준비를 맡게 됐다. 혼자 하는 것은 아녔지만, 그 시간의 무게를 알기에 막막했다. 선배들을 맞이한다는 것이 벅차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몰랐다.

집행부인 김현미 기자와 지난 9년을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일과시간 외에 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었지만, 그 방대한 양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9년은 그만큼 긴 시간이었다. 아직 가정이 없다는 것이 위로 아닌 위로가 되었다. 상대적으로 가정까지 챙겨야 했던 김 기자가 고생이 많았다.



그때가 7월 말이었다. 행사 아이디어를 위해, 복직을 앞둔 세 선배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감히 선배들의 심정을 헤아릴 순 없었기에, 바라보는 것에서 영감을 얻고자 했다. 그분들의 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알게 됐다. 복직이 세 분의, 세 분만을 위한 행사여선 안 된다는 것을. 긴 시간 밖에서 모진 풍파를 헤쳐 온 선배들은 정작 안의 사람들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였다. 행사의 큰 틀은 우리의,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했다. 세 분의 복직이 아닌 우리의 복직이고, 세 분을 위로하는 자리가 아닌 우리 모두를 격려하는 자리가 돼야 했다. 과거에 멈춰있던 우리가 현재에 다시 모여 미래를 이야기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제, 지금, 모레'라는 파트 구분은 그렇게 나온 아이디어였다. 왜 '어제, 오늘, 내일'이 아니냐는 물음이 많았다. 세 분 모르게 세 분께 촉을 세우고 있던 어느 날, 조승호 선배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복직행사에서 발언시키면) 기쁜 날이라고 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말은 못 하겠다. 아프지만 과거의 잘못을 분명히 밝혀 책임을 묻고, 두 번 다시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얘길 하고 싶다."



과거의 무게를 재는 데 있어 '어제'란 표현은 가볍고 얕아 보였다. '그제'는 단순히 '어제'에 무게를 얹기 위함도 있지만, 그 사전적 의미 중엔 옛말로 '그때에', '자국, 자취'란 뜻도 있다. 두 개를 연결하니, '그때의 자국'이 되었다. '지금'은 '(말하는) 바로 이 순간', '모레'는 '내일의 다음 (날)'이란 뜻으로, 행사에 담으려던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는 듯했다. 집행부회의를 거쳐 이 아이디어가 채택됐고, 그에 맞춰 영상과 BGM, 백드롭(배경막) 등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백드롭에 담긴 세 분의 이력은 해직 이후를 정리한 것이다. 앞서 9년을 멈춰진 시간이라 표현했지만, 그건 해직이라는 굴레를 말함이었지, 정작 언론인으로서의 우린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세 분은 해직 기간 내 언론인의 본분을 놓지 않았고, 오히려 더 치열하게 바른 언론을 고민하셨다. 그래서 세 분의 화려했던 YTN 시절보다, 그 이후의 모습이 더 위대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아픔과는 별개로 그에 대한 존경을 담고 싶었다.



이렇듯 구성 전반에 공을 안 들인 곳이 없었지만, 정작 가장 고민하고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따로 있었다. 오가는 사람이 많은 공식행사임에도 중간중간 암전을 시켰던 것이다. 파트 구분 및 영상, 백드롭을 원활히 구동시키기 위한 트랜지션의 역할도 있었지만, 선배들 발언을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컸다. 각 파트별로 한 분씩 MC 없이 독백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는데, 연극적 요소인 암전과 핀조명이 집중도와 느낌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렇게 행사는 끝이 났고, 세 선배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왔다. 9년 만에 되찾은 이 소중한 일상은 앞으로 YTN 재도약의 강력한 발판이 될 것이다. 세 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힘으로 말이다.

한 달 내내 주말 없이 새벽에 귀가하는 강행군이었지만, 뿌듯했다. 세 선배가 돌아와 뿌듯했고,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노조 전임 선배들이 있어 뿌듯했다. 함께 부대끼며 행사를 준비한 시간들이 뿌듯했고, 울고 웃으며 복직을 완성한 우리가 있어 뿌듯했다. YTN을 거듭나게 하는 힘은 여기서 나올 것이다. 동시에 언제 어디서든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우리의 확장을 통해 국민 속에서 '공정방송'을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3,249일만의 출근… 조승호, 노종면, 현덕수를 만나다

“요즘 취재차, 신발 벗고 타는 거 아시죠?”

인터뷰 | **나연수** 앵커

Q 복직 후 열흘, 어땠나요?

조 꽃길만 있는 거 같아요.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불안해요. 얼마나 힘든 일이 오려고 지금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나… (좋은 일이 뭔데요?) 사람들 얼굴 봐서 좋아요(활짝). 부원들 모두 저를 환영해주고 업무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현 출근이 힘들어요. 지하철 두 번 갈아타고 오는데 엄청나게 혼잡하고, 놓치고, 밀치고, 야, 이거 출근이 절반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는 대단히 새삼스러운 거예요. 직장생활 20년 했는데 꼭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노 복직 직후 아버지가 위독하셨어요. 아버지 곁을 지키고 상치르느라 사실 회사 생활을 이야기할 게 없네요. 아버지가 아들 복직을 보고 가셨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하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Q 회사가 많이 바뀌었죠?

조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사투리 걱정마라, 요즘 에디우스가 다 표준말로 바꿔준다’. 와, 세상 참 좋아졌구나 했죠. ‘넥타이 안 매도 된다, 그래픽이 좋아서 넥타이도 달아준다’, 이것도 믿었다고요.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데 마지막에 ‘취재차 탈 때 신발 벗는 거 아시죠?’ 그제야 이상하다 싶더라고요ㅠㅠ 너무 많이 바뀌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돼요.

노 놀라운 건 정말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9년의 공백이 당신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같이 메워줘야 한다는 생각이 전해져요. 더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현 장비가 모두 디지털화 되면서 과거의 번거로움이 상당히 편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여분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더 담아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진전되지 않은 것 같아요. 편리함 속에 자율성과 창의성은 묻혀버린 게 아닌가 싶었어요. 뉴스 자체의 생동감, 뛰어다니고 소리치고, 아날로그 시대의 치열함이 다시 생겨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Q 지난 9년을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노 당당하게 걸어온 ‘나의 길’. 지금 돌아보니 아주 선명하게 길이 보여요.

조 ‘우리는 버티기, 동료들은 기다리기’. 단순한 건데 문제는 언제까지 버티고 기다려야 하느냐, 그걸 알 수 없었다는 거죠.

현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 개별 사건을 통해 그런 부분이 깨지고 실망하더라도, 그 밑에 흐르는 강한 믿음이 있었죠.

Q 나에게 YTN이란, 그리고 동료들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노 삶이죠. 나는 해직 당하기 전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어울리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남들의 영역도 침해하지 않았고 주어진 일만 열심히 했죠. 지금은 아니에요. 직업으로서 뭔가 향유하던 타자가 아니라 나와 YTN이 섞인 것 같아요. 내 인생과 YTN의 궤적이 뒤섞여 분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현 복직 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는가.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했기에 이토록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나”. 직장이라는 건 2차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과 같은 그런 정서를 공유해왔죠. 해직 사태가 YTN에는 아픔이었고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경험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고 말뿐이 아닌 진짜 동료애를 키울 수 있었어요. 그런 염원이 모여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고 시민들도 동참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죠.

조 복직 날, 지하철역을 나오는데 후배들이 만들어준 꽃길이 있는 거예요. 우와, 애들이 이 멀리까지 나와서 꽃을 붙였구나 싶어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었죠. 그런데 아무리 가도 이 꽃길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후배가 옆에서 그러더라고. “선배, 회사 앞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회사 앞까지 오니 동료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려주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런 환영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후배들이 왜 이렇게 나를 환영할까, 나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 내가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감동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Q 앞으로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현 우리가 복직해서 YTN이 바뀔 거라곤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계기가 되겠죠. 그동안 동료들이 안에서 하고자 했던 일, 우리가 밖에서 바라본 회사의 문제점을 버무린다면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단순히 동료의식을 뛰어넘는 연대가 있고 지난 9년 공정방송의 가치를 계속 외쳤던 조직이니까요.

조 복직하면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싶다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복직을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더 우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노 YTN이 미디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매우 구체적으로 해왔어요. 복직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제가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생각해요. 혼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의견을 모아 솔루션을 찾아내라. 회사가 구조적인 문제에 빠져있다고 생각하면 헤어나기 힘들어요. 지금 상황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안했기 때문에 자초한 측면이 커요. 극복해야죠. 지금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일등이에요.

조승호 기자는 인터뷰 중, ‘해직 기간 가장 힘이 됐던 한 마디’로 YTN 동료에게서 받은 문자메시지를 꼽았습니다.

“인생은 주머니야. 주머니 안에 흰 돌과 검은 돌이 정확히 반씩 들어있어. 지금 검은 돌만 계속 뽑힌다고 슬퍼하지 말자. 이제 주머니 안에는 흰 돌이 더 많이 남아있다.”

지금 우리 손바닥 안에 흰 돌이 놓여 있습니다. 이 돌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적폐, '대리처방'



양시창 기자 | 보도국 사회부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새벽에 갑자기 심각한 통증을 호소한다. 야간 당직 간호사가 달려왔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비상약으로 분류된 해열제나 진통제를 주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의사는 아무리 호출해도 응답이 없다. 분노가 극에 달한 환자와 보호자는 간호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내뱉기 시작한다. 간호사는 그 순간 병원을 대표해 죄인이 된다. 연신 사죄하며 환자를 달랜다. 누군가를 대신해 벌을 받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다음날 마주친 의사에게 밤사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오더(처방)를 잘 내려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한다. 의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알겠어요, 한다. 냉랭한 말투를 듣자 갑자기 불길해진다. 혹여나 의사가 수간호사나 간호부장한테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 마디 할까봐 걱정이 된다. 꾹 참고 넘기지 못한 자신이 오히려 미워진다. 수간호사를 찾아가 다시 털어놓는다. 결과는 뜻밖이다. 당직 의사 힘든데 왜 굳이 귀찮게 하느냐는 핀잔이 돌아온다. 간호부장이 되려면 저래야 하나보다. 옆에 있던 의사 과장은 씩 미소를 짓는다. "당직 의사들 너무 피곤하니까 좀 도와줘요."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 적폐가 된 대리 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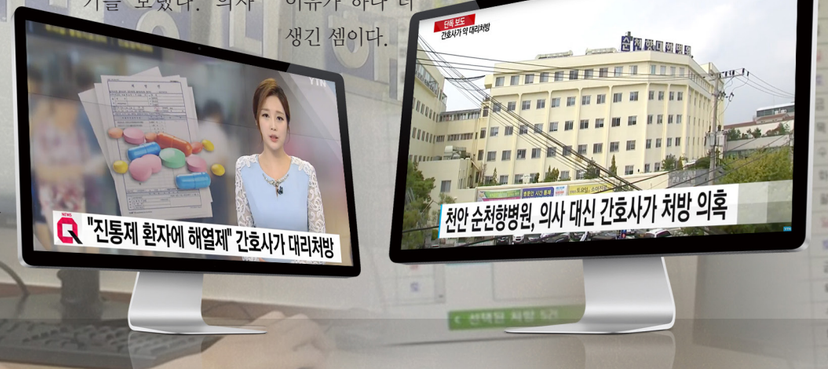
며칠 뒤 야간 근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간호사의 선택은 무엇일까? 간호사라면, 의사 도움이 없어도 약간의 센스(?)만으로 얼마든지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다. 앞서 환자에게 처방된 기록도 남아있고,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환자들의 약도 이미 꿰고 있다. 큰 탈 없이 약을 처방하는 건 사실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 역시 이미 알고 있다. 가끔씩 보안 검열이 있거나 구두처방을 내릴 때를 대비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벽에 의사를 깨우지 않고 처방을 대신해서 작성하니 오히려 병원이 평온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양심만 모른 척하면 된다. 이른바 '대리처방'은 이렇게 생겨났다. 어느 한 명의 간호사나 한 개 병동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구조적인 문제였고 의료법이 금지하는 엄연한 갑질 범죄였다. 제때 소독하지 못한 상처처럼 자꾸 덧났지만 누구도 메스를 들지 않았다. 그렇게 쌓여갔다. 말 그대로 적폐가 됐다.

• 터진 고름…치료는 끝나지 않았다

무거운 짐을 힘겹게 벗어던진 한 명의 결단이 고름을 터뜨렸다. 간호사 몇 명이 함께 용기를 보탰다. 의사들의 떠넘기기로 간호사가 대리처방을 한다는 첫 보도까지 이들이 느꼈던 압박은 감히 상상할 수 없으리라. 보도 이후 여기저기서 추가 제보가 왔다. 덕분에, 간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행정직원도 상황에 따라 대리 처방에 동원됐다는 후속 보도도 나왔다.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던 병원도 그제야 조금씩 인정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군소리 없이 따르던 관습을 무너뜨리기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적폐는 어디서나 큰 힘을 발휘했다.

YTN 보도가 나간 뒤,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관할 경찰서가 달려들었다. 언제부터 관심이 이렇게 깊었는지 큰일이 난 것처럼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를 벌이겠다고 전화를 걸어와 앞다퉈 다짐까지 했다. 씁쓸한 광경이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다. 병원 측은 보건 당국의 조사에 바짝 긴장했고,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대리처방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다. 어떤 간호사는 요즘처럼만 일하면 정말 살맛 난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이 느끼는 이 성취감이 앞으로 얼마나 유지될까. 바라기는 당국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 우리 사회가 그나마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힘겹게 용기를 낸 간호사가 수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느꼈던 배신감을 또 맛보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다.

얼마 전 걱정스러운 소식을 접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단합해야 할 간호사들이 되레 서로를 헐뜯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면 처벌받는 건 의사가 아닌 간호사니 알아서 답변하라는 병원 측의 공지가 보기 좋게 먹혀들었다. 안타까웠다. 간호사들 역시 불법을 저질렀다는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대리 처방을 지시한 의사들의 그것보다 무거울 리 없다. 또 공익제보자는 형사 입건하지 않는다는 새 개정법에 대해 경찰 자문을 구한 뒤 보도했던 터라 아쉬움이 더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처지를 비관하며 자신을 과거에 가두는 것도 적폐를 잇는 또 다른 방법이다. 사건을 처음 보도한 기자로서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속보,

모든 기사는 '발'에서 나왔다

차정윤 기자 | 보도국 사회부

지난여름, 한 달 넘게 대한민국을 뜨겁게 했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남부지방검찰청 주차장 한가운데는 YTN 중계차와 중계부스가 버티고 있었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과 대중까지 촉각을 곤두세웠던 제보조작 수사 속보 뒤편에는 중계 부스와 포토라인을 뛰어다니며 그 누구보다 뜨거운 7월을 보낸 취재진들이 있었다.



6월 28일 오전 7시 50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울 돈암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뱅뱅 돌더니 주차장에 멈춰섰다. 차에서는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내렸다. 이들은 한참 동안 문 앞을 서성거리더니 8시 정각이 되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수상한 낌새에 함께 따라간 취재진이 집 앞에서 마주한 사람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 위원. 제보조작 사건이 터지고 난 뒤 검찰의 압수수색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6월 26일, 국민의당이 고개를 숙였다.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특혜 입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들려준 녹취가 모두 조작된 증거였다는 것이었다. 대선을 뒤흔들었던 사건이었던 만큼 국민의당의 기자회견 직후, 파장이 클 것을 직감했다. 역시나 사건팀에서는 집중 취재팀이 꾸려졌다. 이유미 씨가 긴급 체포되자 검찰 수사에 압수수색은 필수라고 판단했다. 이 씨의 벤처기업 사무실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 · 사무실 등 중요 포인트에서 대기하며 때를 기다렸다. 마침내 검찰 수사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건물에 들이닥치는 생생한 현장 그림으로 1보를 칠 수 있었다.

한 달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사건팀에서 취재한 모든 크고 작은 단독 기사는 모두 '발'에서 나왔다. 한 줄의 팩트를 얻기 위해 관련 참고인, 피의자들의 집 앞에서 새벽부터 꾸벅꾸벅 졸며 밤새 기다렸다. 이준서 前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연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기다리는 취재진에게 마침내 마음을 열었다. 검찰에 소환되며 직접 운전하는 차에 태워 1시간 이상 인터뷰도 진행했다. 결국 5월 5일 첫 기자회견 이후,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무서우니 그만 하자"라고 말했고, 검찰이 이 녹취를 근거로 이 前 최고위원을 압박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도 이런 종류의 통화 · 메시지를 이 前 최고위원이 '제보가 허위인 걸 알고도 폭로했다'는 정황 증거로 활용했다.

모두가 이 전 최고위원의 '미필적 고의'에 집중할 때, 취재진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번 사건을 계획하고 총괄한 사실상 '핵심 인물'로 판단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해 법조계의 자문을 꼼꼼히 얻은 결과였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이후에는 제보가 허위인 걸 알면서도 폭로를 강행한 '확정적 고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담당 검사, 관련 피의자들의 변호인들, 주변 정치인들에게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집요하게 매달렸다. 매일 사건 관련자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돌려 정보를 챙겼다. 틈만 나면 검찰청 차장실에 찾아가 사건의 실마리를 주고받았다. 결국 정성과 진심은 통한다는 것, 그리고 치열하게 붙으며 된다는 점에 짜릿함을 느꼈다.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반면, 사건팀의 적극적인 취재를 통해 밝혀진 대로 검찰은 이준서 前 최고위원이 '핵심인물'인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호와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의 진술도 면밀히 따져 빈틈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엇갈린 주장을 파고들어, 기소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이유미 씨가 긴급 체포된 지난 6월 26일부터, 지난달 31일 김성호·김인원 前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의 기소까지 검찰 수사는 한 달 넘게 숨 가쁘게 달려왔다. 취재진도 함께 뛰며, 수사 속보는 물론 그 이면까지 꼼꼼히 취재하면서 이번 사건의 '구조적 비리'와 '실체적 진실'을 알릴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7월 여름은 짧은 기자생활 동안 가장 뜨겁게 보낸 계절이었다. 어느새 가을에 접어든 지금, 이제 법원의 판단만이 남았다.





출구가 없다! 쿵쿵 노래교실

김하나 PD | YTN LIFE 콘텐츠제작팀

지난 8월 23일, 〈쿵쿵 노래 교실〉의 첫 촬영!
찌는 듯한 더위, 빵빵한 에어컨이 있는 실내였지만 모든 스태프들은 땀을 비 오듯 흘렸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건물을 고작 15명의 스태프들이 끙끙 힘을 모아 장비 세팅을 한 것도 모자라 숲이 들어가자 자그마한 공간에 빽빽이 앉은 어머님들의 노래에 대한 열정 덕분에 스태프들은 2시간 촬영 내내 더위 때문에 고생해야 했다. 아무리 에어컨을 켠들 무슨 소용이리. 세상 어머님들이 여기 다 모여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소리라는 소리는 다 쏟아져 내는데 사우나 급의 더위가 당연하지 않은가. (집에 계시는 평소에는 얌전한 우리 엄마도 이곳에 오면 기관차를 끓여 드셨나 싶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실까…?)

그렇게 개그계의 재간둥이 이동엽MC가 이런 어머님들과 하나 되어 '이러~쿵! 저러~쿵! 쿵쿵 노래 교실'을 외치며 Hot한 첫 촬영이 시작되었다.

쿵쿵노래 교실?

콘텐츠 제작팀장님과 이하 제작PD 6명은 매일 머리를 맞대었다. 주 시청 타겟층인 50,60대가 원하고 있는 콘텐츠는 무엇일까? 우리만 만들 수 있는 신선한 아이템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렇게 4개월이 걸렸다. 노래 교실 현장을 찾아가기로 결정됐고, 담당PD도 김하나, 이시우. (YTN 라이프 공식 남매) 사전 조사로 지역 곳곳 노래 수업 현장을 찾아 다녔다. 현장을 다니면 다닐수록 '와… 이건 프로그램으로 꼭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

보통 노래 수업은 3개월 단위로 진행이 된다. 현장과 수많은 수강생들에게 방송 협조를 받는 것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다. 하지만 발품을 판 덕분에 노래 교실의 3대 천왕 중 1명인 박미현 선생님과 그녀와 함께 할 이동엽MC를 섭외하게 되었다. (참고로 YTN 라이프 공식 개그맨 이강문 팀장님께서 개그맨 이동엽 팬이심)



어머님들의 보약 같은 친구, 박미현 선생님

교주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어떻게 강사의 손짓 하나도 그리 즐거울 수가 있을까? 박미현 선생님과의 첫 만남. 그녀는 우리의 미팅 장소를 압구정 모 커피숍으로 정해주셨다. 그래서인지 그녀에 대한 첫 이미지는 럭셔리한 강남 사모님 그 자체였다.

알고 보니 13년째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는 효녀이자 프로 워킹 맘이었다. '엄마들 앞에서 쏟아내는 솔직한 이야기들 덕분에 수강생 엄마들의 마음이 자동 오픈 되시는 것 같다' 라고 했다. 착한 효심 뿐 아니라 그녀는 멋에 살고 멋에 사는 여자였다. 의상으로 화려함을 올킬하는 그녀를 수강생들은 입이 닳도록 칭찬 일색이다.

'50이 넘었는데 몸매가 좋다' '옷 색깔이 너무 곱다' 그래서인지 이곳의 수강생 엄마조차 패션쇼 수준의 의상을 장착하고 나타나신다. 대한민국 중년 여성들이 이렇게 멋쟁이일 줄이야!

재간둥이 MC 이동엽

개성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쿵쿵 노래 교실'의 재간둥이 MC이동엽은 현장에서 그렇게 엄마들의 귀여움을 독차지 할 수가 없다. '뿌잉뿌잉~ 해죠잉~' 혀가 반토막! '쿵쿵 노래 교실'에서 노래를 연마해 트로트 앨범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그는 실화냐~! 할 정도로 음치다. 아직 방송 초반이라 박미현 선생님을 따라하는 그의 노래 소리가 귀에 몹시도 거슬리겠지만 회가 거듭할수록 '이동엽의 음치 극복기'를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현장 회의 중인 김하나 PD와 오자영 작가



진행 중인 이시우 PD와 이한비 AD

트로트 앨범을 낼 실력이 된다면 MC에서 초대가수로 꼭 만날 수 있으리!



환호하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수강생들

때로는 49금 그 이상?

부천에서 사는 한 어머님은 '첫사랑에게 연락 오면 다시 만난다? 안 만난다?' 라는 질문에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못 만나죠. 사고 칠까봐!'라고 하셨다.

그 이하는 상상에 맡기겠다. (하아… 부끄) 또 울산에서 이곳 부천 까지 '쿵쿵 노래 교실' 때문에 올라오셨다는 어머님은 '공짜 여행 티켓이 생기면 누구와?'라는 질문에 병마와 싸워 이긴 남편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로 모두의 눈시울을 적시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렇듯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러쿵 저러쿵 쿵쿵 토크 코너에서는 이 시대의 어머님들의 속마음을 가감 없이 들을 수가 있다. 혹시 우리 엄마 마음을 잘 모르겠다면 반드시 본방 사수! 토크만 있느냐 메인은 트로트 음악이어야지~ 여기에 전문 방청객들조차도 흉내 낼 수 없는 무지막지하게 격렬한 리액션과 떼창은 감동 그 자체다. 이 현장을 100% 화면에 고스란히 담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답답할 노릇.



쿵쿵 노래교실의 두 얼굴, 박미현 선생님과 MC

어떤 방송국에서도 선보이지 못한 고퀄리티 트로트 토크 콘서트 YTN 라이프 쿵쿵 노래 교실~ 국민 모두가 트로트 가수가 되는 날까지! 쿵쿵 노래 교실이여 영원하라!

매주 금요일 밤 10시 본방 사수!
듣고 싶은 트로트 곡 신청은 02) 398-8191



고려인 중앙아 강제이주 80주년

빈 깡통의 눈물

"출장으로 러시아 횡단 열차를 타게 됐다." 이 말을 꺼냈을 때 누군가는 부럽다 했고, 누군가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라 했다. 보드카 한잔의 여유, 열차 밖 자작나무숲의 낭만을 상상했으리라. 하지만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 우리는 고려인 중앙아 강제이주 80주년을 회상하는 열차를 탔다는 것이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카자흐스탄 알마티까지, 열차 이동 거리만 약 6,500㎞. 지구의 반지름 정도라는 6,500km는 지금도 72시간, 30시간, 31시간, 기차를 3번 나눠 타야 하는 거리다. 그런데 80년 전 고려인들은 이 길을 한 달 넘게,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왔다.

강현정 PD | 글로벌센터 콘텐츠제작팀

◆ 80년 전 아픔 실은 러시아 횡단열차

첫 열차에 오르기 30분 전, 소나기가 쏟아졌다. 탐방단은 제 몸집만 한 짐을 끌고 달리기 시작했다. '제가 몇 호차인가요?' '일단 올라타세요!' 빗줄기만큼 혼란스러운 말들이 오갔다. 다급하게 한 가지만을 떠올렸다. '저 열차를 놓치면 낙오한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복도에 흠뻑 젖은 80여 명이 뒤엉켰다. 한 평 남짓한 침대방(4인실)을 찾은 것은 한참 만에서였다. 처참한 몰골을 서로 확인했을 때 비로소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 생각이 났다.



고려인은 소련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 열차 출발 3일 전에 받은 일방적 통보였다. 가축이나 짐과 함께 화물열차에 타서 영문도 모른 채 한 달을 달렸다. 그런 와중에도 독립운동가와 지식인 등 수천 명이 일본의 앞잡이라는 핑계로 총살됐다. "그때 고려인에 비하면 고생도 아니지요." 탐방단 중 누군가 말을 꺼낸다.

아름다운 자작나무숲 풍경도 10분 정도 보다 보면 별다를 것이 없다. 소지품조차 마음껏 꺼낼 수 없는 좁은 공간. 자발적 감금생활에 지친 탐방단은 매일 조촐한 한식 파티를 열었다. 뜨거운 물만 있으면 해결되는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물티슈는 세상에서 가장 유용했다.

취재 내내 시간과의 싸움이 반복됐다. 잠시 내려서 고려인을 만났다가 바로 헤어지는 일. 모든 현장이 전쟁터라지만 스케치부터 인터뷰까지 체감 상 10분 만에 후다닥 치고 빠져야 하는 일정은 처음이었다. 짐을 옮기다 발톱이 빠지고, 입이 부르트고, 누군가는 흰머리가 났다.



[인터뷰: 황인미 / 고려인 회상열차 탐방단]
"저희는 목적지가 있고 일정이 끝난다는 것을 아니까, 이런 것도 견딜 수 있는데 우리 선조들, 고려인들의 이주는 너무 참담했을 것 같아요."

◆ 살아있는 역사와 만나다

출발 10일 만에 고려인의 중앙아 첫 정착지, 카자흐스탄 바슈토베 마을에 도착했다. 이곳은 말이 마을이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다. 추위와 야생동물을 피하기 위해 고려인은 숟가락으로 땅굴을 파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열악한 환경 탓에 어린아이들은 여럿 목숨을 잃었단다. 지금은 고려인 공동묘지만이 쓸쓸히 남아 탐방단을 반기는 곳. 80년 만에 올리는 진혼제로 고려인의 넋을 위로한다.

먹먹한 마음이 들 때쯤 백발의 노신사가 다가왔다. 연해주에서 사흘 만에 살던 집도 버리고 왔다는 고려인 1세 할아버지. 제법 또렷한 한국어로 말을 건넨다. 이 멀리까지 우리를 기억하고 찾아줘 고맙다고.



[인터뷰: 천억실 / 92세 고려인1세]
"세상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잘 살길 바랍니다. 제가 1997년에 한국에 가니까 모든 마음이 반가워서, 우리 민족들이 잘 사니까…"



[인터뷰: 곽응호 / 96세 고려인1세]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죽어서 저기 가서도... 기억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이렇게 온 사람, 먼데서 오니 어이구야~."

◆ 전 세계 흩어진 고려인 약 50만 명. 지금도…

중앙아 황무지에서 다시 시작한 한민족, 고려인의 끈기는 놀라웠다. 척박한 땅에서 밭을 일구고 삶을 개척했다. 생존과의 싸움 속에서도 민족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1938년에는 학교도 세웠다. 우리말과 노래, 춤을 잊지 않기 위해 고려극장을 80년 넘게 유지했다. 고된 삶 속에서도 유지해온 한민족이라는 핏줄, 우리라는 정체성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에 흩어진 고려인 약 50만 명의 고려인 가운데 모국으로 돌아온 고려인은 4만 6천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상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고려인 4세들은 만 19세가 되면 한국을 떠나,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한다. 최근 법무부가 2019년까지 한시적인 '방문 동거'자격을 부여했지만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려인의 유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터뷰: 김조야 / 고려극장 고려인 가수]
"저도 한 핏줄 아닙니까? 부모님도 일생 동안 여기서 활동했으니까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통과 문화, 예술이 이어가야 합니다."

(고려인 중앙아 강제이주 80주년 / 회상열차에 관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글로벌센터 콘텐츠 제작팀〉이 제작한 특집, '빈 깡통의 눈물'을 확인하시라.)

러시아 이르쿠츠크역에서 탐방단을 환영하는 고려인들



카자흐스탄 첫 정착지





YTN에 연예팀이 있나요?

김겨울 팀장 | YTN PLUS YTN Star팀

요 근래 밖에서 가장 많이 듣던 말입니다. 지난 7월 YTN의 연예뉴스 브랜드 YTN Star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강내리 기자와 김아연 기자 외에 6월 말 입사한 김겨울 팀장을 비롯해 최보란 기자 조현주 기자, 지승훈 기자, 반서연 기자로 채워졌습니다. 거기에 김태욱 영상 사진 담당까지. 2개월 남짓 된 햇병아리 팀이지만, 열정과 포부만은 끓어넘칩니다. 우리의 모토는 말입니다. "AI가 절대 도전할 수 없는 기사를 쓰겠다." 인간의 영역, 기자의 영역, 엔터테인먼트의 영역 안에서 차별화 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럼 저희 팀원들을 소개합니다.

YTN star

연예판 '그것이 알고 싶다' 팩트Y 및 가요팀
(강내리 & 지승훈)

이 조합 묘하게 어울린다. '투캅스'를 연상케 하는 강내리 기자와 지승훈 기자. 연예계의 이슈가 있으면 밤낮을 마다 않고 달려갑니다. 연예계 소송 관련 이슈부터 열애설, 잠적설 등 이들이 쫓아갑니다. 주말도 헌납한 취재, 근성 있는 취재팀, 바로 '팩트Y' 팀입니다. 꾸려진 지 50여 일, 벌써부터 포털사이트 연예판에서 '많이 본 뉴스' 1위를 장식했는데요. 예리한 관찰력과 차분함으로 현장을 주도하는 선배 강내리, 집중력 최고의 열정 넘치는 후배 지승훈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든든한 맏이와 살림꾼 후배
(최보란 & 김아연)

때는 2017년, 한류 예능이 대세입니다. 최보란 기자와 김아연 기자는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과 예능인들을 취재하고, 생태계를 분석합니다. 경력 8년 차 최보란 기자는 강호동 김구라 김병만 백종원 전현무 등 굵직한 예능 MC들 독점 인터뷰를, 푸근한 인성까지 겸비한 베테랑입니다. 김아연 기자는 예능 PD들 릴레이 인터뷰, 프로그램 분석 기사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기안서 작성 등 팀 운영에 필요한 일도 꼼꼼하게 챙기는 살림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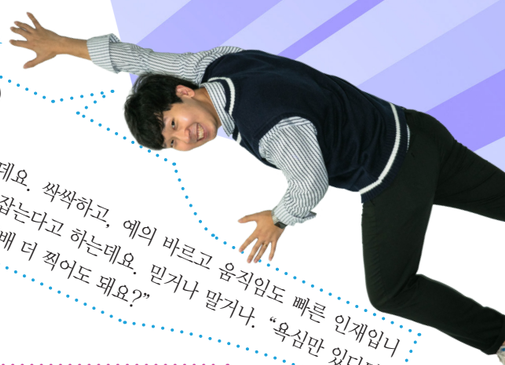




"영상은 제게 맡겨주세요. 욕심만 있다면." (김태욱)

'신문고' 팀에서 일하다가 YTN Star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싹싹하고, 예의 바르고 움직임도 빠른 인재입니다. 이선균을 닮은 외모로 여성 취재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하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욕심만 있다면 을 외치며, 촬영에 혼신을 쏟는다고요. "욕심만 있다면. 선배 더 찍어도 돼요?"

김태욱 영상사진기자



매일 한 페
이지씩, '학구파' 배우
팀 (조현주 & 반서연)

'배우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쓴다.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연기를 조목조목 파헤친다. 그러려면 기자가 더 알아야 한다?' 당연한 말씀인데요. 조현주 기자와 반서연 기자로 구성된 배우팀은 동네 도서관과 모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틈틈이 공부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YTN Star 팀의 캠페인 '리스펙트: 이순재 편'을 주도하면서 배우 이순재의 60년 연기 생활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채널 TBC 시절부터 무려 300여 편의 출연 작을 공부했으니, 한국 드라마의 역사에 대해 짚어본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선배 조현주는 최근 시간을 아끼기 위해 회사 근처까지 이사했다고 하는데요. 후배 반서연과 함께 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고.

"김겨울 팀장은 머니투데이와 스포츠조선을 거쳐 연예부 기자로서 스타들의 결혼, 사망, 단독 인터뷰 등 굵직한 특종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대선 때, 이병헌, 정우성, 고소영, 한지민, 고수, 류준열, 박서준, 박정민, 이준익 감독, 노희경 작가 등 37명의 셀러브리티들이 함께 한 투표 독려 영상 '0509 장미 프로젝트-뽑아주세요'를 총괄 기획,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공로를 인정받아 중앙선관위로부터 표창까지 ^^. 팀장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보스'로 군림하기보다 명확한 동기 부여를 통해 팀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 _최보란 기자 씀



김겨울 팀장

하나 더! YTN Star에서 준비한 캠페인 [리스펙트 Respect: 이순재 편]을 공개합니다!



"당신은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연기 인생 60년, 83세의 현역에서 활동 중인 최고령 배우 이순재를 조명했습니다. 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그의 삶을 돌아보며, 후배 배우들과 '리스펙트(존경)'에 대한 참 의미를 배워갑니다. 김명민, 김영철, 배종옥, 신세경, 이서진, 정보석 , 하지원 등 다수의 후배 배우들과 영화 '왕의 남자', '사도'의 이준익 감독과 프로그램 '삼시세끼', '꽃보다 할배' 등을 연출한 나영석 PD가 함께 했습니다. 연예계의 어른 이순재의 도전과 역사를 보면서 후배 배우들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 거기서 깨달은 '존경'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과학이 즐거운 시간 우리가 만들어요"

맹수지 앵커 | 사이언스 TV국 과학뉴스팀



"귀하는 YTN 사이언스 앵커에 합격하셨습니다."

지원자 약 500명. 서류심사, 카메라테스트, 면접까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4명(남2,여2)이 YTN 사이언스의 새 앵커가 됐습니다. 각자의 특색이 있는 4명의 앵커들입니다.

세렌디피디(Serendipity), 예상치 못하게 우연히 얻은 위대한 발견을 말하는데요. 강력접착제를 만들다 실패해서 포스트잇 메모지를 얻게 됐고, 실수로 배양용기에서 생겨난 곰팡이에서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전자레인지, 코팅 프라이팬, 아스피린도 모두 우연한 발견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일까요? 우연한 발견 전에 그들에겐 끊임없는 노력과 실패가 있었고, 그 실패를 들여다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YTN 사이언스 앵커가 된 것이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YTN 사이언스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각자를 들여다보고 지나온 길을 반추해보면 모두 과학뉴스에 대한 역량과 흥미와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 통하고 통하는 사람, 박철민 앵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해 매우 기쁘고 뿌듯합니다. 더욱이 저는 다른 분들보다 늦은 나이였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성공한 도전보다 실패한 도전이 훨씬 많지만 성공도 실패도 도전이 없었다면 얻지 못할 결과고,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현재가 될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마치 미지의 세계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과학자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YTN 사이언스에 잘 어울리는 앵커가 되기 위해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앞을 고민하겠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잘한다'보다는 '통한다'는 말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과학뉴스 진행이 천직, 맹수지 앵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지금 하는 일이 일치하면 행복한 사람이라는데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화학교육을 전공했지만 선생님보다는 심장이 터질 만큼 뉴스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또 너무 재밌고 좋아했습니다. 과학뉴스 앵커가 된 지금, 수백 벌의 옷 중에 저에게 가장 맞는 옷을 입은 느낌입니다. 앞으로 무엇보다 항상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을 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새의 날개가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공기가 없다면 그 날개는 결코 새를 들어 올릴 수 없는데요. 살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일들에도 모두 사실 과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어렵고,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무조건 쉽고 재밌게 다가가겠습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 과학을 그려내는 사람, 오세혁 앵커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저를 선택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만큼, 기대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전자기기 회사 디자인팀에서 1년간 일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웨어러블과 사물인터넷,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연구했습니다. 모르고 지냈지만 인생에 꽤 많은 부분을 과학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YTN사이언스 앵커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재밌고 신기한 과학정보들을 전하면서 과학과 더욱 가까워지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 YTN 사이언스는 '와사비'다, 황보혜경 앵커



'황뽕커' 황보혜경입니다. 황보앵커를 빨리 말하다보니 벌써 저를 '황뽕커'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앞으로 친근하게 '황뽕커'라고 불러주세요. '아, 이 엘리베이터를 매일 탈 수 있다니!' 시험을 치러 온 YTN 사옥에서 저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왼편 불이 들어오는 버튼이 압권이었는데, 앞으로 매일 그 버튼을 누를 생각을 하니 설레네요. YTN 사이언스는 제게 '와사비'입니다. '와'이티엔 '사'이언스는 '비'교불가다라는 뜻인데요. 국내 유일의 과학 채널이라는 점에서 다른 채널과는 비교 불가능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시청자들에게 고추냉이처럼 톡 쏘는 생생한 과학계 이슈들을 전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7일은 YTN 사이언스 개국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10년 간 수많은 사이언스TV국 선배들께서 멋진 강산을 만들어주셔서 저희는 단번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감사함과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이제 저희가 10년 뒤, 개국 20주년의 새로운 강산을 위한 첫 돌을 잘 쌓아 올리겠습니다.

• 사이언스 투데이
◆ 본방송 : 월~금 오전 11시, 오후 4시
◆ 재방송 : 오후 1시 30분, 오후 7시, 익일 새벽 2시 30분 (YTN)







YTN 라디오 청계산 송신소

"우리도 송신소가 있어요."

정경남 부장 | 기술국 기술관리부

"HLQV FM 94.5MHz, YTN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유사한 안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HLQV는 YTN라디오 이름이다. 전파법 용어로 무선국 호출부호라고 한다. 매시 1회 이상 호출부호를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보와 같이 하고 있다. 이 호출부호가 있도록 해주는 곳이 바로 송신소이다. 생소하고 어렵게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범위에서 YTN라디오 송신소를 소개해 보도록 할까 한다.

방송국이란?

"오늘 YTN 방송국 견학하고 왔어요." 의미는 이해하지만, 엄밀히 보면 틀린 얘기이다. 방송국은 무선국(송신소)을 말하며 연주소(제작시설)를 포함하고 있다. 즉, "오늘 YTN라디오 방송국 견학하고 왔어요." "YTN방송사 견학하고 왔어요."가 옳은 표현이다.



송신소 기능과 시설

부조정실에서 제작한 방송신호를 송신기에서 전파로 변환하여 안테나로 송신하는 것이 송신소 기능이다.

1. 송신기에서 주파수 94.5MHz 전파를 만든다.

청취자에게 방송신호를 실어서 전달하는 화물차 역할을 하는 주파수이다. 채널이라고 한다. 우리는 자동차에서 채널을 저장해놓고 버튼만 선택해서 라디오를 듣고 있다.

2. 안테나로 전파를 송신한다.

송신기에서 만든 전파는 철탑에 있는 안테나를 통해서 방송국 허가기준에 맞게 송신을 하고 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방송신호 수신시설, 송신기, 안테나, 전원시설, 공조시설로 설치되어 있다.

청계산 송신소

한남대교를 건너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을 지나면 우측에 철탑 2개 보이는 산이 청계산이다. 그 중 가늘고 잘빠진 철탑이 우리가 직접 세운 라디오 철탑이다.

1. 송신소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

- 기존 방송국에 혼신을 주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동일 주파수인 춘천MBC(94.5MHz)와 1차 인접 주파수인 대전KBS(94.7MHz) 방송구역에 YTN FM의 방송이 넘어가면 혼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를 305도 1방향 (김포시 방향)으로 송신하고 있다.

- 인구밀집지역으로 전파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전파가 기존 방송국인 강원도와 충청도를 넘지 않으면서 최대한 서울 도심지역으로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반시설과 경제성이 있고 유지보수가 편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건물과 전기 사용이 어렵거나 임대료가 비싸면 힘들다.

2. 청계산은 송신소 설치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런 조건들을 고려할 때 서울 중앙에서 가능한 동쪽, 남쪽에 위치하면서 다른 방송국이 없는 곳이 청계산 송신소이다. 군부대 내에 있어 무인으로 운용하기에 적합하고, 투자대비 경제성이 매우 만족스러운 송신소이다.

- 주소 : 경기도 수정구 상적동 산73-2 청계산 망경대 (해발 628m)
- 주파수, 출력 : 94.5MHz (CH33), 출력 : 5kW
- 안테나 : 2-Dipole (4단1면, 305도), 원형 편파

2008년 3월 27일 삼성산(안양)에서 개국했고 2010년 3월에 수도권 동부지역 난청해소를 위해 청계산으로 이전했다.

YTN뉴스에 날개를 달다

여러 경쟁사들이 YTN을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라디오이다. YTN 라디오는 보도전문편성 지상파라디오로서 전체 편성의 60% 이상을 뉴스와 보도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출근길 러시아워 2시간 동안 방송되는 시사정보프로그램 "출발! 새아침"은 지난 2008년 YTN 라디오 개국 이래 10년째 YTN FM의 매일 아침을 지키고 있는 간판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청취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청취 패턴에 맞게 YTN 생생경제, 굿머니굿라이프, 당신의 전성기 오늘, 뉴스 익는 밤, 시사안드로메다 등 뉴스의 개념을 보다 넓고 유연하게 해석해 전달하고 있다. 특히, 주말과 휴일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듣는 라디오 청취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일상 속 배경음악' "뉴스 앤 뮤직"은 팝과 가요 등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음악을 연이어 선곡하고 중간 중간 들어오는 실시간 뉴스 속보와 간추린 뉴스를 전달하고 있는데, 유명 연예인들의 말장난과 잡담에 지친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뉴스와 음악'이라는 간결한 편성으로 오히려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YTN 라디오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YES를 통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생방송 듣기와 다시듣기가 가능하다.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차량내 FM수신기 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한 청취층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부로 제한된 FM 94.5MHz의 주파수 수신 권역이 이제 전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장된 것이다. 실제로 생방송 중에 참여하는 청취자의 문자나 SNS 메신저를 보면 '여기는 대구 수성동입니다', '뉴저지에서 출근길에 듣고 있어요', '태안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목포 가는 길'이라는 반응들이 이제는 흔치 않게 보인다. 그만큼 YTN 라디오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확장됐다는 증거다.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형 스마트폰에서는 별도 앱 없이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서 청취가 가능하다.


원격제어시스템

FM 94.5MHz, YTN뉴스 FM! 계속 애청해 주시길!




라디오 송신기를 점검하고 있는 조상현 부장과 정원태 차장



YTN을 찾는 사람들

1995년 YTN이 처음 시청자를 만난 곳은 '케이블'을 통해서였다. 종합편성의 지상파 TV밖에 없던 당시 우리 방송에 케이블TV는 '전문 편성', '24시간 방송'이란 변화를 끌고 온 '뉴미디어'였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YTN은 위성방송과 DMB, 인터넷 스트리밍, IPTV 등... 발전하는 미디어기술의 맨 앞에 서서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작지 않은 아쉬움이 하나 있었으니, 손님맞이였다.

YTN을 직접 찾아오는 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솔루션이 없었다. 아쉬움이 풀린 것은 2014년, 열쇠는 상암 신사옥 'YTN 뉴스퀘어'였다. 'YTN투어'란 이름으로 시작된 '시청자를 위한 집들이'는 3년이 지난 지금, 한 달에 5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는 인기 상품이 됐다. '투어 가이드', 커뮤니케이션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찾아오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면, 그 어떤 홍보가 소용 있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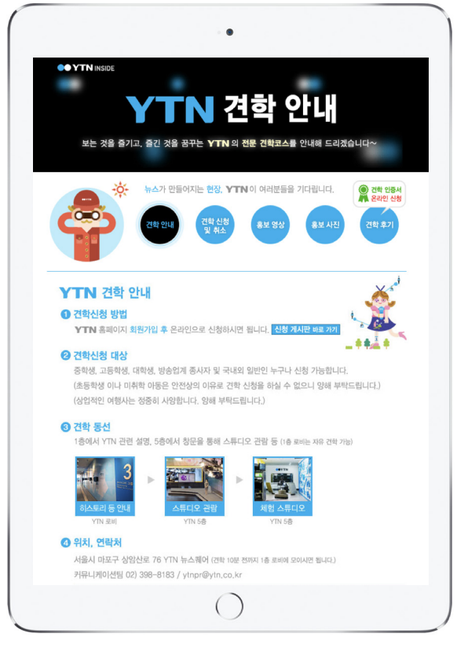
기정훈 팀장 | 시청자센터 커뮤니케이션팀

공식 투어는 하루 두 번, 오전 10시와 오후 2시다. 한 번에 20명까지만 받는다. 보는 사람도, 보여주는 사람도 만족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다. YTN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매월 1일, 다음 달 투어 신청 달력이 열리는데, '체험학습일'처럼 붐비는 날은 열리자마자 차곤 한다. 지인들에게 커뮤니케이션팀의 공식 투어가이드를 선보이기 원하신다면, 임직원분들도 '홈페이지를 먼저'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다만, 실제 방송시설을 둘러보는 만큼 공식 견학은 중학생부터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생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란다.



집들이(?)를 유료로 하는 이웃 모 방송사와 달리, YTN투어는 무료다. 게다가 입간판만 세워 놓은 샘플 체험이 아니라, 거의 매시간 이뤄지는 '생방송'을 직접 보는 특혜가 주어진다. 날로 늘어가는 방문객 수는 이런 '장점'이 입소문 난 결과이리라. 주로 1시간 남짓 진행되는데, 먼저 1층 중간 복도에서 YTN의 역사, 채널, 비전 등에 대한 소개를 듣는다. YTN의 비전(Vision)에 '뉴스' 대신 '콘텐츠'란 단어가 쓰였다는 말로 사이언스TV와 라이프 등을 소개하면서,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의 도약을 이야기하고, 미디어어워즈 10번 가운데, 공정성 1위를 9번 했다는 소개로 YTN 뉴스의 차별성을 설명한다. 그리곤 5층으로 올라가 방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듣고, 크로마키와 ENG카메라 앞에서의 기념사진 등을 찍는다. 그때 그때 스튜디오 사정에 따라 스튜디오나 부조에 들어가서 설명을 듣기도 한다. 사정이 허락하면 잠깐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방문객은 정말 다양하다. 직업체험이나 체험학습을 원하는 중고생이 70% 이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대학생과 성인들의 방문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들에게도 YTN투어는 인기가 높다.



육군본부는 아예 체험식 미디어 트레이닝 견학'이란 이름으로, YTN 견학을 미디어 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다. 1년에 15번 일정을 정해 놓고, 공보장교, 정훈참모들이 찾아온다. 특히 이들은 잠재적 취재원들이라, 한층 더한 열기로 채워지곤 한다.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발명기자단'에도 정기적인 특별 견학 기회가 제공되는데, 단지 YTN 견학만을 위해 제주도에서 날아오는 친구들도 있다. 정성을 다해 안내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기자를 지망하거나 미디어 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도 자주 YTN을 찾는다. 기자 지망생의 필수과목쯤 될는지 모르겠지만, 혹 후배가 될지도 모르는 방문객들이라 특별히 '후생가외(後生可畏)'의 마음으로 모시고 있다.

국내 손님만 오는 것도 아니다. 올해만도 세계 10여 개국에서 온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방문객들에게 YTN은 색다른 추억을 제공했다. (내부 사정 상, 외국인의 공식 견학은 통역을 대동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무료 견학에 만족하지 않고, 손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엄청난 고가품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모든 이에게 작은 기념품이라도 제공하려 하고 있다. 중고생은 볼펜, 대학생 이상 성인은 컵이나 물병이 주로 제공된다. 가끔 특별한 아이디어 상품도 준비되는데, 지난해 VIP급 방문객을 위한 '거꾸로 우산'이나, 여름 상품 '글자가 나오는 LED 선풍기'는 많은 방문객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요즘엔 겨울방학 방문객들을 위한 멋진 기념품을 찾는 중이다.

모든 사람이 부푼 꿈을 안고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기대 없이 온 사람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열정은 보여줄 수 있다. 정성은 느끼게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뉴스를 즐겨보지 않는 어린 학생들도 '뉴스' 하면 YTN이 떠오르게 하고 싶다. YTN에 다녀갔다면 누구나 "뉴스는 역시 YTN"이란 생각이 새겨지게 하고 싶다.

그게 YTN의 두 투어 가이드 김여진, 기정훈과 커뮤니케이션팀이 한마음으로 바라는 소망이다.

◆ 사우들을 위한 Tip (지인들의 YTN 방문을 직접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1. 비공식 방문객들에게도 '기념품'을 제공해 드립니다.
(하루 전에 커뮤니케이션팀에 알려주십시오)
2. 가능하면 공식 투어 시간 (10:00~11:00, 14:00~15:00)은 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새로운 국민 국가 모델, 스웨덴을 가다



아들 병민이가 이번 여름방학에 한 달 동안 북유럽을 배낭여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무리해서라도 일정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행복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는 스웨덴, 부자 간의 스톡홀름 상봉까지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한국외대 초빙교수, 정치학 박사

한때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모든 세계인들이 새로운 제3의 길로서 주목하고 있는 국가로 변신한 스웨덴. 그 비결은 무엇일까? 며칠 동안의 스웨덴 방문으로 그 의문점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다.

스톡홀름시의 첫인상은 평화스럽다는 것이었다. 시민들의 표정은 별 걱정이 없는 듯했고, 안정된 분위기였다. 비록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변방에 위치해 있지만 스웨덴은 현재 세계의 이목을 끌만한 수식어를 여러 가지 갖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주기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자랑하는 복지모델국가, OECD 최고수준인 77.8%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중도 정당인 사회민주당이 최장기집권한 나라, 실질적인 양성 평등이 구현된 성 해방의 나라, OECD 국가 중 덴마크 다음으로 높은 43.1%의 담세율, 낮은 실업률로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나라, 1938년 살드셰바덴 협약으로 자본과 노동이 타협한 국가, 세계에서 평균수명이 가장 긴 장수국가 등. 스웨덴은 21세기에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폐해를 극복한 국민국가로서의 사회민주주의 국가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처음 찾은 곳은 스웨덴 의회였다. 외국인들을 위해 하루 4차례씩 의회 투어 프로그램이 있었다. 의회 투어 해설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아마도 의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으로 보였다. 간결하고 유창한 영어로 그녀는 스웨덴 의회의 역사, 현황, 그리고 활동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해설사는 스웨덴 의회 민주주의 역사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의였다고 매우 자랑스럽게 강조했다. 의회 본회의장 좌석 배치도 정당별 순이 아니었다. 8개의 정당 소속과 관계없이 지역별로 의원들이 위치했으며, 앞 두 줄 정도는 약 20여 명 정도의 의원들이 현안에 관해 치열하게 토론하는 장소였다. 스웨덴은 20세기 유럽에 몰아닥친 파시즘과 공산당의 독재를 거치지 않고, 의회를 통해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이행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편집자 주 _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은 80년대 고려대학시절부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 투옥경험까지 있다. ㈜ 노동자신문 기자, 민주당 마포을 지구당 위원장 등을 거쳤고 현재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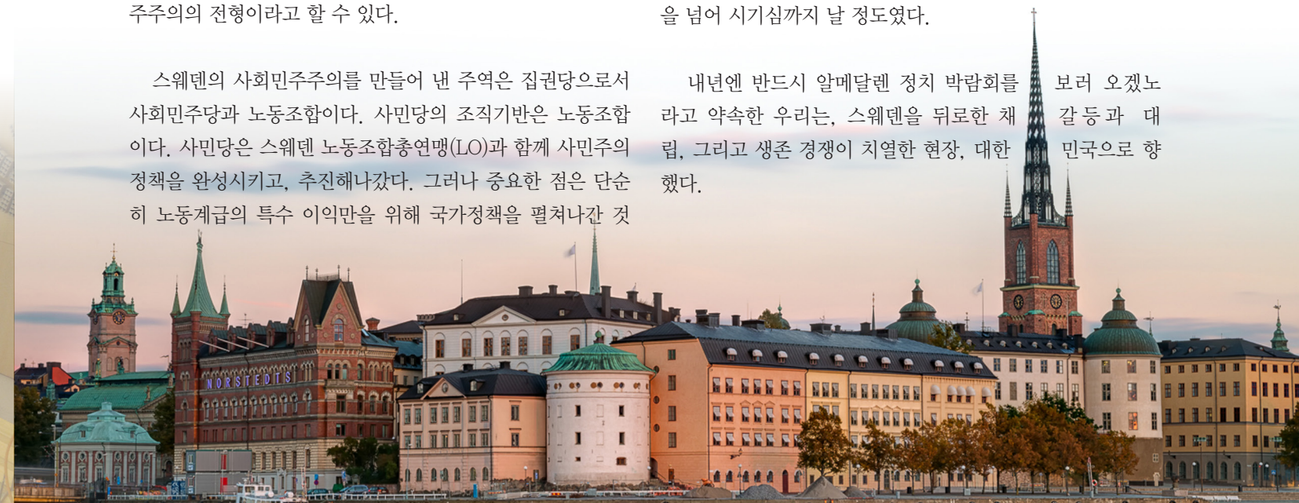
스웨덴의 유명 휴양지 고틀란드 (Gotland) 섬에서는 매년 7월 초 약 8일 동안 정치박람회가 열린다. 1968년 올로프 팔메 사회민주당 당수가 고틀란드섬 알메달렌 공원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다가 즉흥적으로 트럭 위에 올라가 연설한 것에서 기원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는 스웨덴 사람들의 정치 축제이다. 이 기간 동안 4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각 정당들의 정책을 듣고 시민들은 격의 없이 정치인들과 만나고 토론을 벌인다. 투표율 85%의 비밀이 바로 즐거운 축제로서의 정치, 자연스러운 참여와 소통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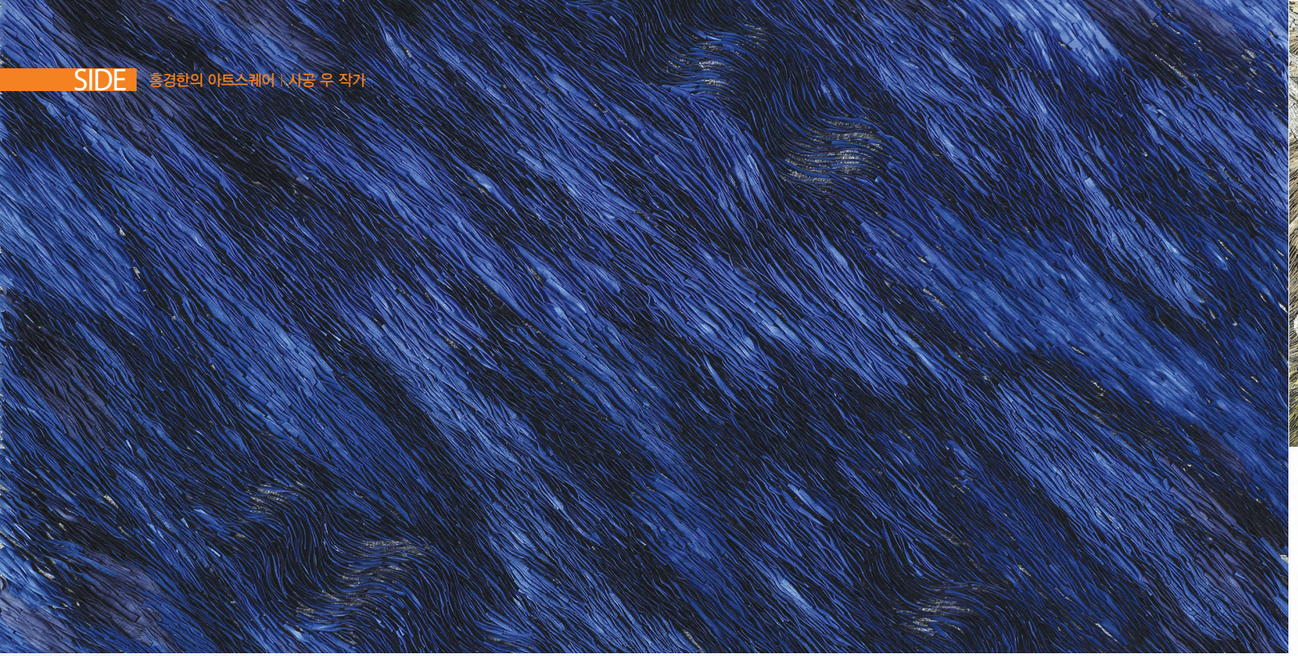
스웨덴은 숙의 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가 실현되는 국가이다. 스웨덴의 입법안은 정부에서 직접 제출한다. 정부가 입법 관련 테마를 잡고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입법 초안을 만든다. 그리고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입법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일반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에서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제출된 안을 입법화 시킨다. 단순한 토론, 혹은 공론화 작업이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적인 연구, 그리고 8개 정당 간의 치열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를 만들어 내는 숙의 민주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를 만들어 낸 주역은 집권당으로서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이다. 사민당의 조직기반은 노동조합이다. 사민당은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LO)과 함께 사민주의 정책을 완성시키고, 추진해나갔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단순히 노동계급의 특수 이익만을 위해 국가정책을 펼쳐나간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양보, 그리고 제 정당과의 연대 및 타협, 설득과 함께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국정운영을 펼쳤다는 것이다. 이점이 바로 사민당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위해 '연대임금제도'를 도입하여 동일노동 동일 임금제도를 실행했으며, 경기가 불황일 때는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기도 했다. 사민당과 LO는 기업 경영에 노조가 참여하는 산업민주주의 실현과 육아, 보육, 가족복지와 의료보험의 전면적 적용, 노령, 실업연금 등 복지제도의 완성, 해고에 대한 엄격한 금지, 평생직장으로서의 근로계약 등 평등주의와 포괄적인 복지정책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국가 모델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스톡홀름시 청사도 방문했다. 지방자치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스톡홀름시 정부도 스웨덴의 자랑거리였다. 정치의 안정과 변화를 관광 상품으로, 또 국가의 자랑거리로 선전하는 스웨덴, 대한민국과는 너무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었다. 또한 노동조합이 연대와 통합, 중도의 철학으로 국정운영의 주체가 되었던 스웨덴. 그런 정치 · 사회적 환경하에서 인류의 보편성과 평등성이 실현되는 현장은 단순히 부러움을 넘어 시기심까지 날 정도였다.

내년엔 반드시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를 보러 오겠노라고 약속한 우리는, 스웨덴을 뒤로한 채 갈등과 대립, 그리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현장, 대한민국으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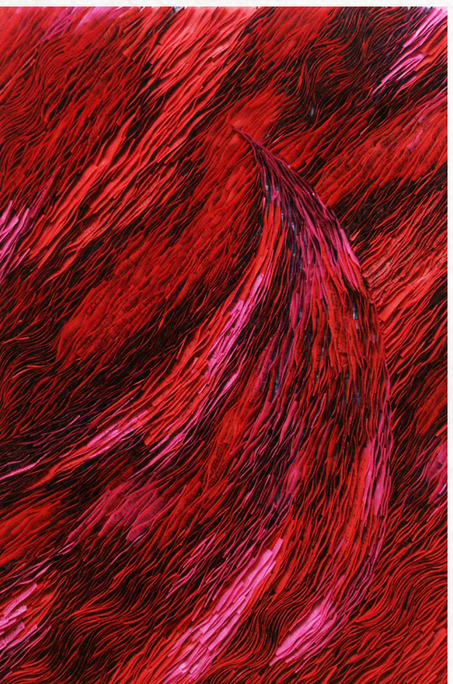
삶의 노래, 172 x 112cm, korean paper & mixed media on canvas, 2008

삶의 노래 공존의 소리

_ 사공 우 작가

홍경한 | 미술평론가, 강원국제비엔날레 초대 예술총감독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생성과 소멸, 117 x 80cm, korean paper & mixed media on Canvas, 2010

작가 사공우의 〈삶의 노래〉 연작은 제목만큼이나 친근한 느낌을 심어준다. 그 익숙함은 역사와 함께해 온 '한지'라는 재료가 그렇고, 나무와 같은 화면 속 자연물들, 그리고 비례, 흐름 등의 조형원리 탓이리라. 〈힘〉 시리즈는 대체로 〈삶의 노래〉 보다 리드미컬한 편이다. 밝고 힘찬 에너지는 중후한 톤에서 발하는 역동성과 조화롭다. 각각이 모인 덩어리는 휘몰아치듯 공간 내에서 자연스럽게 부상하는데, 자연과 사물, 에너지와 소리, 보이는 것과 읽히는 회화적 기상도가 쾌청하다는 인상이다.

음표를 자르고 오려 붙여 완성되는 그의 작품들은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형국을 지닌다. 한지를 가늘게 잘라 빼곡히 세워 붙인 후 균형을 맞춰 성취되는 그것들은 홀로가 아닌 채 의지하며 공존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른바 공존 – 공유 – 공명의 세계다.

〈힘〉 시리즈든 〈삶의 노래〉 연작이든 이들 작품은 빛의 각도에 따라 표정이 달라진다. 그림자의 길이, 결의 방향이 안색을 달리하는 모양새다. 이는 비물질적인 소리와 물질적인 재료의 만남이 일구는 흥미로운 세계다.



삶의 노래, 162 x 112.5cm, korean paper & mixed media on Canvas, 2007

〈삶의 노래〉는 삶의 희로애락이 녹아 있다고 한다. 소리를 시각화한다고 적혀 있다. 예를 들면 "1호 크기를 붙이는데 약 100장의 한지가 소요될 정도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한다고 한다. 엄청난 끈기와 집중력을 요구하는 지난한 작업과정은 그 자체로 삶의 여정에 해당한다."라는 식이다. 그래 보이긴 한다. 낱낱의 종이를 잘라 붙이는 것도 쉬운 과정이 아닐뿐더러 그걸 세워 하나하나의 동세나 형상을 만드는 건 적지 않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작업 과정의 지난함이 삶의 여정이라는 건 다소 이현령비현령이고, 때문에 다소 깊이 있는 각주가 요구되지만, 어쨌든 삶에서 건져 올린 세상에 대한 반응을 투사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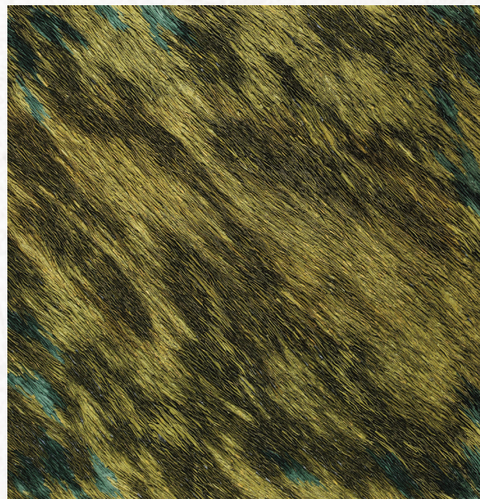
시선이 가는 부분은 '소리의 유동'이다. 음표를 잘라 붙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소리는 아니겠으나 리듬감 충만한 역동성이 소리로 치환될 가능성은 높다. 비교적 거칠긴 해도 흡사 칸딘스키나 파울 클레의 작품에서 발화되는 장면이 스친다. 따라서 "작가의 작품은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들어본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바람에 들풀이 흔들리는 소리 등 친숙한 소리들을 낮은음자리표와 높은음자리표로 옮겨 작품 속에 삶과 동시에 음악을 담는다."는 어떤 매체의 표현은 적절하다.

필자는 그의 여러 작품들을 접하며 생동적으로 꿈틀거리는 추세를 목도한다. 그것에는 질과 형, 소재와 재료라는 조형의 새김을 넘어선 인간 삶에 관한 추적이 녹아 있다. 여기서의 추적은 우리 내면에 안주된 그 무언가를 건드리는 조건이자 지향점일 수 있다. 작업 과정의 고단함이 증명하듯 시간을 무대로 켜켜이 쌓아올린 지난한 흔적 또는 내적 심상의 세계를 향한 표상 등이 삶의 미로(迷路)를 빠져나와 그 궁극성을 암시하는 흔적들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원래 한지라는 재료가 가진 특성도 한몫하나, 그의 그림들은 물성으로 인한 거부감 대신 오래 볼수록 정감을 유발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지처럼 한없이 받아들이되 조금씩 천천히 내뱉는 식이다. 단색조의 색감, 세밀하게 직조되는 물성, 자연의 빛과 어우러져 그 사이를 관통하는 보일 듯 말 듯한 일루전(Illusion)은 양자 간 상부상조하면서 더불어 변화하며 생동감을 만들어 낸다. 이 부분은 사공우 작품의 외형적 변별력을 유지시키는 요소이다.

다만 인위적으로 드리워진 '띠'나 특정 인식을 유도하는 형상, 삶의 노래라며 그것에 상응하는 조형요소로서의 나무라는 소제 등은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힘' 또한 누구나 편견 없이, 제한되는 관념을 배척하는 '무제'로 열어 놓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렇다면 관자의 사유의 폭, 사고의 범주는 훨씬 자유롭고 넉넉해질 것이다.

삶의 노래, 162 x 162cm, korean paper & mixed media on Canvas, 2007



사공 우

_영남대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주요 개인전** YTN ARTSQUARE 초대전 〈YTN ARTSQUARE, 서울〉 / Art Influence 초대전 〈Taipei Taiwan〉 / 대구수성아트피아 〈대구〉 / 전주한지박물관 〈전주〉 / 갤러리 미 초대전 〈갤러리 미, 서울〉 / 아트갤러리 청담 초대전 〈청도〉 / 문화예술회관 〈대구〉 / 에스 갤러리 초대전 〈대구〉

• **주요 그룹전** The Art Taipei 〈Taiwan〉 / Kao Hsiung Fair 〈Taiwan〉 / 한지작가 초대전 〈원주한지테마파크, 원주〉 / 아트광주 〈김대중 기념센터, 광주〉 / 부산아트쇼 〈BEXCO, 부산〉 / 한국화랑미술제 및 KIAF 〈COEX, BEXCO, 예술의 전당〉 / Korean Art Show 〈Chelsea, New York, USA〉 / 환기미술관 공모작가 기획전 '푸른빛의 울림' 〈환기미술관, 서울〉 / 청담미술제 〈갤러리 미, 서울〉 / 박여숙 갤러리 기획 '음악과의 만남'전 〈신도리코 문화공간, 서울〉 / 한국신구상회전 〈대구〉

• **주요 소장처** ㈜ 일신문화재단 / 미술은행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Group Sovereign Collection 〈Hong Kong〉 / (주)세종병원 / (주)삼화여행사 / 명승건축그룹 Collection / Marta Black 〈New York〉 / Mr & Miss Lassiter 〈Texas U.S.A〉 / 크리스티 뉴욕 일본한국 미술파트 옥션 1점 낙찰 〈2008년 3월〉 그 외 VIP 콜랙션 다수



찬열 누나가 아니라 YTN 앵커 박유라 랍니다

한때 아이돌을 꿈꾸던 소녀가 뉴스 앵커로 텔레비전에 등장했다.

화면 속 냉정함 이면에 꿈틀대는 끼는 어쩔 수 없는 법.

아이돌 스타 동생 저리가라 할 정도의 엄청난 '포텐'이 드디어 폭발했다!

수줍음과 귀여움,
매력으로 똘똘 뭉친 앵커실 막내,
박유라 앵커를 만나본다~



| 협찬 | Creta 크레타 스튜디오 www.icreta.com / 02_3142_0010, 0070
촬영 / 임혜란 실장 헤어 메이크업 / 김정은 실장 인터뷰 / 김여진 앵커

Q 한때 아이돌을 꿈꿨다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린 마음에 막연히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한창 '소녀 가수' 붐이 일었을 때였거든요. 혼자 노래 연습도 해보고 댄스동아리 활동도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끼와 재능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 이후로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학업에 전념했어요. (※그래도 한때 기획사 길거리 캐스팅이 되기도 했다는~)

Q 프로듀스101 패러디 촬영, 변신이 맘에 드는지?

20대 끝자락에 '합법적으로' 제대로 한 번 귀여워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저는 못 다한 꿈을 이뤄서 여한이 없지만, 보기에 거북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미리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여름 〈프로듀스101 시즌2〉에 푹 빠져 있었는데, 제가 응원하던 연습생을 어설프게나마 따라해 볼 수 있어 행복했어요.

Q 숨겨진 끼가 다부지던데, '박유라'는 어떤 사람?

제가 낯을 가리는 편인데다 선배들이 아직 어려워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조용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편한 자리에서는 수다스럽기도 하고, 워낙 거침없이 단호하게 말해서 별명이 '단호박'일 정도에요. 또 술은 입에 못 댈 것 같다고도 하시는데, 좋아해서 오히려 탈이랍니다.^^

Q 앵커의 꿈은 언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담임선생님께서 "유라야 너는 아나운서를 해 보면 어떻겠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귀가 얇은 편이라 '괜찮은데?'라고 생각했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눈여겨 봐주신 것 같아요.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자연스럽게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Q YTN 입사한 지 1년 반, 본인에게 '앵커'란?

비로소 '정말 중요한 일을 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전하는 곳이니까요. 회사에 들어와 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서 가끔은 겁이 나기도 해요. 앵커는 뉴스의 최종 전달자인 만큼 항상 신중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Q 뉴스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될 때는 언제였나?

동생이 소속된 그룹 'EXO (엑소)' 관련 소식을 전할 때는 사실 민망하기도 하고, 남 이야기하듯 시치미 떼고 있는 상황이 스스로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가끔 인터넷을 하다보면 제가 읽었던 기사가 화면 캡처나 동영상으로 올라와있고, 댓글로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큼 중요한 뉴스를 전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해져요.

Q 동생 (가수 찬열)이 종종 누나 방송을 모니터 해주는지?

예전에 우연히 방송을 보고 '인증샷'을 보내온 적은 있어요. 언제 한 번은 "내 뉴스 안 챙겨보나?"고 물었는데, 본인이 나오는 방송도 다 못 보는데 어떻게 챙겨보냐고 하더라고요. 바로 납득이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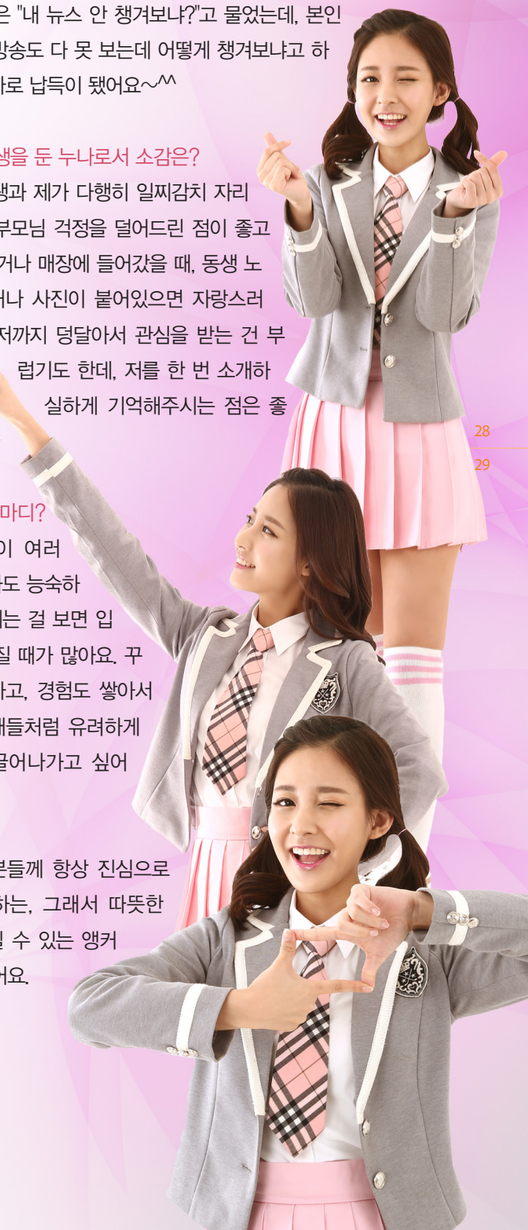
Q 스타 동생을 둔 누나로서 소감은?

우선 동생과 제가 다행히 일찌감치 자리를 잡아서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린 점이 좋고요. 길을 가거나 매장에 들어갔을 때, 동생 노래가 나오거나 사진이 붙어있으면 자랑스러워요. 저까지 덩달아서 관심을 받는 건 부담스럽기도 한데, 저를 한 번 소개하면 확실하게 기억해주시는 점은 좋더라고요.^^

Q 포부 한 마디?

선배들이 여러 명의 패널과도 능숙하게 대담하시는 걸 보면 입이 떡 벌어질 때가 많아요. 꾸준히 공부하고, 경험도 쌓아서 언젠가 선배들처럼 유려하게 대담을 이끌어나가고 싶어요.

시청자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뉴스를 전하는, 그래서 따뜻한 느낌을 드릴 수 있는 앵커가 되고 싶어요.





유석현의 클래식 속으로~

쓸쓸함과 고독, 그리고 체념

– 브람스 교향곡 제4번

유석현 앵커 | 국민신문고

"국제부에선 가능하면 결혼하지 말아라. 가정생활이 평안하려면 정신없이 바쁜 부서에 있을 때 결혼할 것!" 신혼 생활은 엉망이 되겠지만 기자는 원래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는 바쁜 직업임을 초창기에 각인(?)시켜야 한다. 그래야 그러려니 하고 살게 됨으로써 가정생활이 원만해 진다는 게 선배들의 조언이었다. 반면에 집에 일찍 들어갈 수 있는 부서에 있을 때 결혼하면 나중에 사회부나 정치부로 발령났을 때 "이럴 줄은 몰랐다"며 두고두고 바가지를 긁히게 된다는 거였다.

입사 동기 가운데 유일한 기혼자였던 나는 6개월간의 수습기자 시절 새벽 4시 전에 일어나 집을 나서 거의 매일 자정 넘어 술에 취해 귀가하기 일쑤였다.

나중에 시간 여유가 있는 부서로 발령 나 걸음마를 시작한 큰 놈과 방바닥을 기어 다니던 둘째 놈을 돌봐주게 되자 와이프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했고 또다시 바쁜 부서로 갈 때에도 아쉬운 표정이 잠깐 스쳤을 뿐 곧바로 '체념' 모드로 바뀌어 그러려니 했다.

30년 남짓 기자 생활 동안 정말로 바빴던 때가 언제였을까? YS는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자리에선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공개했고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도 덩달아 뒤를 따랐다. 관련 자료를 쌓아놓고 재산 공개와 관련한 스트레이트와 해설, 문제점, 뒷얘기, 화제꺼리 등을 쓰다 보면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동산처럼 쌓이고 –지금은 담배를 끊었지만– 시간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뜻하지 않게 재산이 공개되면서 당시 P 보사부장관과 K 서울시장은 재산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나기도 했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그후 곧바로 법제화돼 시행되고 있다.

DJ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했을 때에도 북한팀장을 맡아 정신없이 바빴던 기억이 난다.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했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IMF 위기와 국가 파산 당시, 그리고 북한의 첫 핵실험 등등 기자마다 나름대로 바빴던 경험을 잊지 못할 것이다.

바쁜 부서에 있다 보면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간다. 벚꽃이 피는가 하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낙엽이 지는가 하면 눈이 내린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길 위를 뒹구는 낙엽을 보게 되면 만감이 교차한다.

이런 늦가을에 어울리는 클래식 곡들을 꼽다 보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브람스의 작품이다. 4개의 교향곡과 두 개의 피아노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2중 협주곡, 현악 4중주와 6중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첼로 소나타, 클라리넷 5중주 등 어느 하나 가을 분위기를 나타내지 않는 곡이 없을 정도다. 그중에서도 굳이 한 곡만 선택하라면 망설임 없이 교향곡 4번을 꼽겠다.



• 브람스 교향곡 제4번 e단조



브람스는 자신이 작곡한 교향곡 가운데 4번을 가장 좋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베토벤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동시에 그만큼 완성도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스승인 로베르트 슈만의 부인 클라라를 사랑했던 브람스가 1885년 52세에 작곡, 초연한 이 곡은 인생의 황혼기에 느낀 고독과 체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쓸쓸하고 슬픔이 묻어나는 명작으로 누구는 2악장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는 사람도 있다.

· 제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바이올린 파트의 마치 한숨을 쉬는 듯한 멜로디로 시작해 때로 정열적이면서도 시종일관 '인생의 가을'을 느끼게 하는 애수에 찬 악장이다.

· 제2악장 (안단테 모데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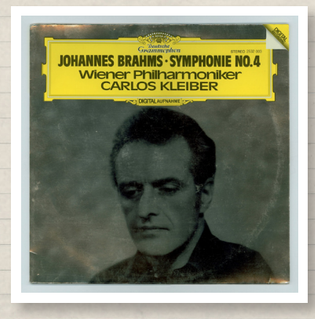
호른과 목관으로 시작되며 바이올린의 피치카토 속에 주제가 반복된다. 3분이 넘어가면서 잠시 조용하다가 첼로 합주로 연주되는 제2주제는 사색에 잠기는 듯한 아름답기 그지없는 멜로디로 브람스가 작곡한 가장 뛰어난 테마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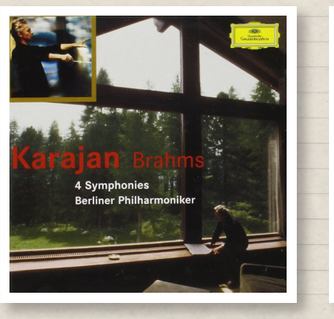
· 제3악장 (알레그로 지오코소)

빠른 템포의 스케르초로 길이도 6분 정도로 짧아 주의해서 듣지 않아도 곡이 머리에 박힐 만큼 간단명료하고 경쾌하다. 중간에 나오는 트라이앵글 소리 때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낀다는 사람도 있다.

· 제4악장 (알레그로 에네르지코 에 파쇼나토)

힘차면서도 희한하게 비통한 느낌을 보여주는 파사칼리아 형식의 악장. 8소절의 음계 '미–파#–솔–라–라#–시–(낮은) 시–미'를 주제로 관악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변주하는 형식으로 돼있다. 변주곡의 대가인 브람스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악장이다.







[추천 음반]

-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그라모폰)의 연주를 먼저 추천한다. 웅장함에서부터 세세한 표현에 이르기까지 꽉 찬 소리를 들려준다. 개인적으로는 대학 2학년 때인가 첫 번째로 구입한 브람스 교향곡 4번 음반이기도 하다. 카라얀의 브람스 교향곡 연주는 모두 뛰어나 전집으로 구매해도 좋다.
- 오토 클렘페러 지휘, 필하모니아 관현악단(EMI)의 연주는 사색적인 브람스다. 약간 투박한 듯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연주로 거장의 면모를 보여준다.
- 카를로스 클라이버 지휘, 빈 필하모니커(그라모폰)의 연주도 좋다. 79년 초기 디지털녹음이어서 녹음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96년 바이에른 실황이나 94년 베를린 필과의 연주가 더 뛰어나다는 평론가도 있다.
- 이밖에 브루노 발터 지휘, 콜럼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SONY) 음반과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 지휘, 빈 필하모니커(그라모폰) 음반도 좋다. 번스타인, 아바도, 므라빈스키 등 웬만한 거장들은 모두 녹음을 남겼다.

영화평론가 최광희의 영화가 그린 세상

〈택시운전사〉는 어떻게 천만 영화가 되었는가?

신화적 틀로 분석한 〈택시 운전사〉





최광희 | 영화평론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재연한 영화 〈택시운전사〉가 지난 9월 9일 1,200만 관객을 넘어섰다. 모든 흥행 현상에는 사회적인 맥락이 있다. 이 영화가 한국영화로는 15번째 천만 영화가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부터 그것을 보편적인 이야기 구조로서의 신화적 틀을 빌어 분석할 것이다.



비교신화학자 조셉 캠벨에 따르면, 어느 문화권이든 신화는 기본적으로 '영웅의 여정'이라는 유사성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영웅의 여정은 보통 세상에서 특별한 세상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보통 세상으로 귀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영웅은 특별한 세상에서 협력자를 만나고 적과 대립하며 사활을 건 심연 속으로 들어갔다가 극적으로 귀환한다. 이때 영웅은 유무형의 보상을 얻고 돌아온다.

오늘날의 많은 영화들이 신화적 스토리텔링을 한다. 신화는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인류의 보편적 이야기 방식이기 때문이다. 스포츠에서도 야구는 신화적이다. 홈베이스를 밟아야 득점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윷놀이는 말이 시작점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영화 〈택시운전사〉 역시 신화적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송강호는 서울의 택시운전사다. 그는 독재에 항거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현장으로 독일인 기자를 태우고 떠난다. 모든 길이 막혀 있는 상황.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그곳을 통과해야 한다. 우회로를 택해,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광주라는 특별한 세상으로 진입한다.

그 다음 이야기 역시 앞서 말한 신화적 구조에 대입된다. 광주의 참상을 목격하고, 그를 살갑게 대해줬던 이들의 희생을 목격하며 그 자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보안사의 추격에 얼떨결에 휘말린다. 그리고… 그가 속했던 보통 세상으로 귀환한다. 이 과정에서 그가 얻은 보상은 무엇일까. 영화는 그것을 관객들의 해석에 맡긴다.

'신화적 이야기틀'의 요체를 앞서 나는 조셉 캠벨의 분석을 빌어 '영웅의 여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제시되는 영웅은, 엄밀히 말해 독일인 기자가 아니라 택시 운전사 송강호다. 광주의 참상을 알리려는 기자의 책무는 목숨을 걸고 그를 실어 나른 송강호에 의해 완성된다. 중요한 건, 그 영웅이 대단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홀로 남겨진 딸아이를 걱정하는 소시민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이게 이 영화의 주제 의식이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끈 이들은 송강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저 보통 사람들이었다. 영화 속에서도 송강호를 돕는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다. 시위에 나선 이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는 아낙들이었다. 외국인이 탄 서울 택시를 잡으라는 상부 지시에도 눈 질끈 감고 통과시켜준 이름 모를 군인이었다. 대학가요제에 나가서 싶어 대학을 갔다는 날라리 대학생이었다. 목숨을 걸고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한 택시 운전사들이었다.

〈택시운전사〉의 감동은 바로 그 지점에서 파열된다. 역사를 전진시키는 이는 특별한 이가 아니다. 바로 우리, 양심과 시비지심과 용기를 가지고 불의에 맞선 보통 사람들, 지난겨울의 수백만 촛불처럼,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영웅인 것이다. 그래서 관객들은 이 영화에서 재연되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소시민들의 영웅적 희생에 한없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영화의 한 지점, 독일인 기자를 홀로 남겨두고 학살의 현장을 떠나 몰래 서울로 향하던 송강호는 가수 혜은이의 "제3한강교"를 꾸역꾸역 부른다. 그러다 흐느낀다. 어떤 감정이었을까. 결국 그는 불현듯 택시를 돌려 다시 광주로 향한다. 영웅은, 친구를 남겨 놓고는 절대 특별한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아마 그가 핸들을 돌리는 순간이 신화적 구성의 하이라이트, 심연으로의 돌진이자 영웅이 얻게 될 보상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냥 개인이었다가 역사에 개입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 장면에서 송강호의 연기는 한국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김여진 앵커의 Number & Talk

인생을 노래하는 소리꾼 장사익

인터뷰 | **김여진** 앵커

또르륵 눈물이 흘렀다.
무엇 때문에 우는지 생각하고 나오는 눈물은 없는 법.
청명한 가을날, 홍지마을 소리꾼 입에서 흘러나온 노랫소리가 마음의 깊은 울림을 남겼다.
마흔이 넘어서야 꽃을 피운 늦깎이 소리꾼 장사익의 음악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진심'이라는 그릇에 담아 푸근한 미소와 함께 늘 내어놓기 때문이다.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와 웃음기 가득한 얼굴, 1만 7천여 명의 팬과 함께 나이를 먹어간다는 시니어 세대 젊은 오빠,
소리꾼 장사익을 만나본다.

6.6

현충일, 올해 추념식에서 '모란이 피기까지'를 열창해 실검 1위 등극

제 아우가 현충일 딱 한 달 전인 5월 9일에 하늘로 갔어요. 군인이었던 터라 국립 현충원 납골당에 모셨는데, 내려오는 길에 보훈처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현충일에 노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 얘가 금방 하늘로 올라가서 빽을 써서 노래 해달라고 한 거 아닌가?' 했어요. 김영랑 시인의 대표작 '모란이 피기까지'를 노래로 불렀는데요. 5월이 되면 모란이 되게 크고 붉어요. 모란이 크니까 질 때는 꽃잎이 지는 게 아니라 꽃 뭉치가 툭 떨어지는 거여. 찬란한 5, 6월에 역으로 꽃이 지는 큰 슬픔을 시인은 표현 했는데 결국은 찬란한 봄을 기다리는 희망의 메시지였던 거죠. 저도 그곳에 잠든 분들의 영혼들이 슬픔이지만 또한 찬란한 봄을 기다리는 희망의 노래로 불러야겠다 했어요. 당시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아주 단순하게 소리북 하나와 해금하고만 노래를 불렀어요. 오히려 버리면 더 많은 것들로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상이 더 많이 남았던 거 같아요.

23 음악 인생, 1994년 소리꾼 데뷔

가수로 치면 '청년기'지. 최백호 선생이 나이는 나보다 한 살 덜먹었거든. 데뷔가 50년 다 돼가요. 그런데 나 보러 선배님이라고 한단 말이지. 아이러니한데 세상은 늦게 피는 꽃이 있다니까. 남들 여름에 다 필 때 좀 있다 찬 서리 내릴 때 국화꽃이 핀단 말이여. 늦게 핀 꽃은 오래갈 수 있어요. 차츰차츰 컸으니까 난 젊단 말이여~ 몸은 늙었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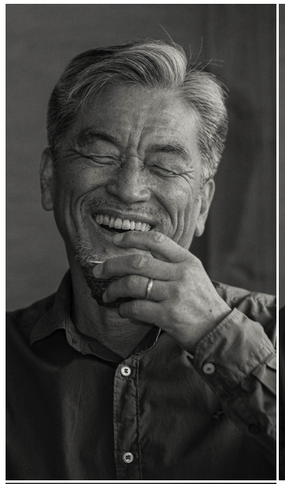
노래를 만 나이로 마흔다섯에 시작했잖아요. 요새 수명이 우리는 90살까지 간단 말이지. 딱 절반에 음악을 시작했지요. 제 인생은 음악을 한 것과 안한 세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꼭 밤과 낮, 캄캄한 밤에서 환한 광명으로! 내 인생이 정말 절묘한 거여~ 음악이 내 삶이자 인생이에요. 이것은 정말 기막힌 일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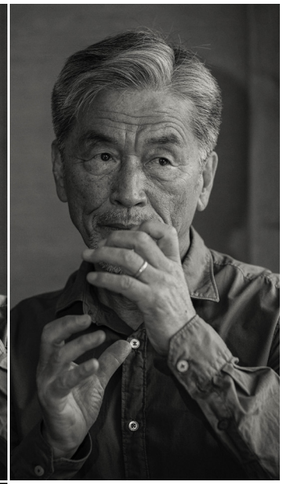
15 소리꾼 이전 직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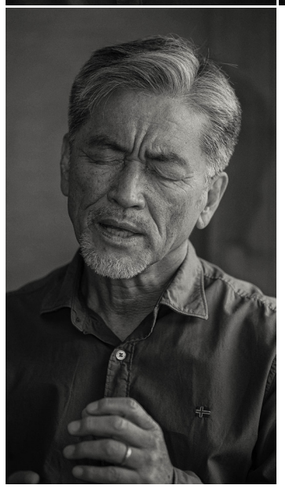
선린상고 출신이라 1967년 고려생명보험에 취직이 된 거예요. 거기서 3년을 일하다 군대를 갔는데 돌아와 보니 회사가 넘어간 거여. 첫 번째 시련을 본 거죠. 무역 회사에 간신히 들어가 열심히 일했어요. 1년쯤 되니 1973년 1차 석유 파동이 났어요. 국제 시세가 100% 오른 거지. 상고 출신 먼저 잘리고, 야간 학교 다닌다고 잘리고. 아~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죠.

독서실 총무에, 외판원에 안 한 게 없어요. 물론 자책도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못 배워서 그렇구나!' 내가 못 나서 그런 거야 하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 열심히 살다가 얻어터지고 또 일어서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때 나도 초등학교 때 국회의원을 꿈꾸면서 뒷산에 올라 목청 틔우는 연습을 하던 꿈 많던 아이였어요. 근데 우리 꿈이라는 게 삼각형이에요. 옛날엔 다 대통령 된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중엔 밥만 먹고 살자 하게 되는 거죠. 광천에서 서울로 올라와 넘어지고 깨지고 하다 보니 밥만 먹어도 살 수 있다는 소박한 꿈을 갖게 되더라고. 버리고, 또 버리다 보니 소소한 꿈, 노래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45 인생의 터닝포인트 나이

나는 뭐 항상 헷갈리는 인생이었으니까 가족들도 내가 아무것이나 하기만 해도 좋아 했어요. 무조건 오케이였죠. 고향에서 아버지가 쌀하고 김치는 줬으니까 그걸로 먹고 살았던 거지. 마흔다섯, 태평소 3년만 열심히 해서 전문가가 되면 밥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소박한 꿈으로 시작한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 때마다 어릴 적 고향에서 듣던 태평소 소리가 소록소록 생각나더라고요. 나도 부는 악기를 해볼까 해서 단소, 대금, 태평소를 배웠죠. 직장 다니면서 틈틈이. 나중엔 마지막 직장 카센터 일을 접고 뭘 할까 하다가 태평소 하나에 목숨을 걸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했죠. 1년 정도 열심히 하니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장원도 하고 재미있는 거여. 그러다 뒤풀이 자리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소리꾼으로 나왔는데 진짜 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본격적으로 음악 하기 전에 무대에 서본 적은 있어요. 서태지 매니저가 우리 카센터 고객이었는데 내가 심심하면 태평소 분다고 했더니 라이브 공연에 참여할 수 없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지~ 해서 1993년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하여가' 라이브에 참여했죠. 사실 내가 한 번도 얘기 안 꺼낸 건데 가수 이선희 씨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할 때 징을 한번 친 적도 있었어요. 이선희 씨는 이 사실? 몰러~

1106 소리꾼으로서 데뷔 공연 날, 1994년 11월 6일

홍대 근처 '예 극장'이라는 소극장이었지요. 피아니스트 임동창, 모둠 북 장인 김규형이 한번 하자고 해서 창피하지만 딱 한 번만 나선 거예요. 근데 100석 정원인데 꽉 차고 넘쳐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도 못 가고 참을 정도로 대박 난 거지. 이틀 동안 800명이 몰린 거여. 평소 흥얼거리던 노래들 찔레꽃, 섬 등을 1부에서 하고, 2부에는 임은 먼 곳에, 봄비 등 유행가를 했죠. 우리가 뒤풀이같이 피아노랑 모둠 북이랑 해서 놀아버린 거여. 그랬더니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소문이 나서 이튿날 배우 손숙 선생이 공연장에 찾아왔어요. 원래는 얼굴만 보고 나오려다 '어어? 이거 뭐지?' 하며 선생이 끝까지 보신 거예요. 이후 손숙 선생의 칼럼을 통해 매스컴에 처음 제가 소개됐죠.

1994년 데뷔할 때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태지, HOT, 김건모, 신승훈…. 거기에 난 이름도 없는 잡초 같은 존재였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적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행운인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돌아왔던 길들이 시간 낭비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빙 돌아왔던 걸음이 바로 '얘기'인 거여. 나만의 스토리. 인생의 굽이굽이 엎어지고 깨지고 눈물 흘리던 모든 것들이 얘기거든. 인생의 희로애락이 노래인 거지. 그러니 사람들이 '어! 저놈이 내 얘기를 하네!' 하는 겁니다.

2015

롤러코스터 같았던 해. 전설 이미자와의 콘서트 vs. 성대 혹 발견

이미자 선생님은 정말 전설이죠. 결코 다른 사람과 무대에 서는 법이 없는데 후배랑 같이 무대에 섰던 건 제가 처음이었죠. 사실 처음엔 안 한다고 했어요. 원래 텔레비전을 안 좋아해서. 나간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미자 선생님이 좋다고 하신 모양이야. 엄청나게 영광이었죠. 그래서 MC 없이 진솔하게 둘이서만 시간을 채워보자 했죠. 그 무대가 시청률 20%를 기록한 거여.

그런데 그해 가을부터 이상하게 목이 서걱 거리고 높은 소리가 잘 안 나고 호흡도 짧아지고, '얼라~ 이게 웬일이지?'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엄청나게 큰 혹이 뻘겋게 있다며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없으면 달리기 선수가 다리 부러진 것과 마찬가지인데. 앞이 안 보이는 거여. 얼라~ 노래 못 허겄네. 근데 한편으론 더 건강하게 노래를 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서울대병원에 얘기해 2016년 2월에 수술을 했어요. 보름 동안은 말 한마디 못하고 남의 소리와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한테 음악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음악을 빼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오직 노래만큼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8개월만인 지난해 10월부터 활동 개시했어요. 노래가 없으면 내 인생이 눈물이고, 노래가 있으면 꽃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8 정규 앨범 수

2014년 8집 앨범 이후 머리도 심란하고 악상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도 내년에 나이 칠십이 되면 그동안의 곡들을 주워 모아 앨범을 하나 내야지요. 내년 11월 기념 공연을 하려고 세종문화회관도 예약했으니 내년 초쯤 새 앨범이 나올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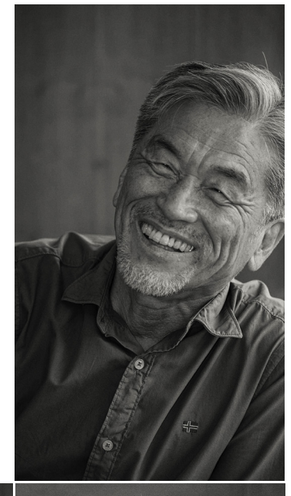
악보를 그리는 게 아니라 마치 시 낭송하듯이 운율에 맞춰 기타를 수십 번 쳐가며 노래를 만들어요. 속으로 나불나불 거리죠. 시에 운율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고저장단을 넣는 거여. 즉흥적으로 노래하기 때문에 기타 치는 사람도 알아서 맞춰 치는 거죠. 그래서 녹음할 당시 음악과 공연 때 음악은 다 달라요. 녹음도 대개 하루 만에 끝냅니다. 판소리에서 설명 부분을 '아니리'하고 하는데 그런 형식을 빌려서 악기 하나 없이 실감 나게 부르니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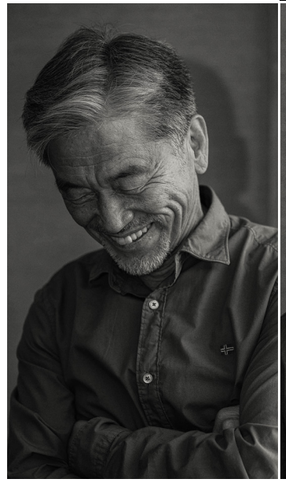
아무래도 인생이 꽃이라. 이 세상 모든 식물은 다 꽃을 피워요. 사람은 과연 꽃을 피우는 게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죽을 때 '아~ 내가 잘 살았다'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꽃을 피운 사람인 거지. 노래에서 꽃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다들 꽃 한 송이 들고 제대로 한번 피었다 가보라는 의미인 거여. 이 세상에 한번 놀러 왔는데 놀지도 못하고 시들어 간다면 아쉽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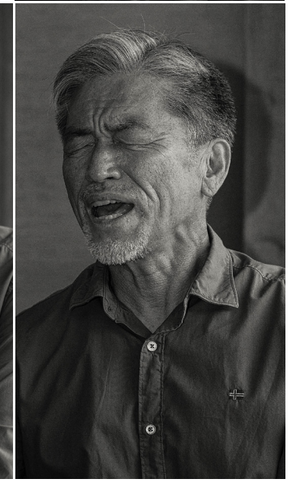
70 내년 나이

칠십이면 그동안 쌓아왔던 인생 경험과 모든 과정을 정리하면서 '인생을 저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해야겠구나' 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봐요. 나이 먹는 것이 추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노래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고 싶어요. 죽으러 가는 건 알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느끼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느끼게끔 말해주고 싶어요.

욕심이 있다면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요. 인생의 희로애락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꼬부랑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나와 노래를 불렀을 적에 진정한 노래인 거죠. 나이 90이 돼서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간다~ 내가 돌아간다~ 왔던 길 내가 다시 돌아간다~" 하며 노래를 불렀을 때 비로소 노래와 인생이 합일이 되는 거여. 그러다 무대에서 꽥 하고 죽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우리가 음반을 레코드(Record)라고 하잖아요. '기록'인 거예요. 70에 맞는 노래를 부르는 거지. "나이답게 제대로 하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노래라고 생각해요.







이모저모



라디오 청취자 위원 위촉식 _ 7. 26



확대간부회의 〈복직 협상에 관한 보고〉 _ 8. 8



2017 을지연습 비상 소집 훈련 _ 8.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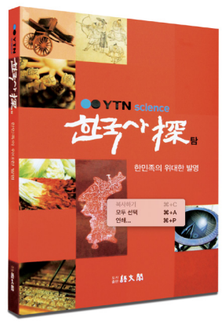


해직자 복직 행사 〈해직자가 오네요〉 _ 8. 28



◆ 〈아름다운 도전, 아름다운 비상〉
2017 팬텀 클래식 with YTN KLPGA
- 대회일시 : 9월 29일 (금) ~ 10월 1일 (일)
- 대회장소 : 경기도 용인 88 컨트리 클럽
- 주최 : 팬텀 / YTN

◆ 〈한국사 探탐 – 한민족의 위대한 발명〉
- 저자 : YTN 사이언스
- 출판 : 도서출판 어문각
- 발매 : 2017. 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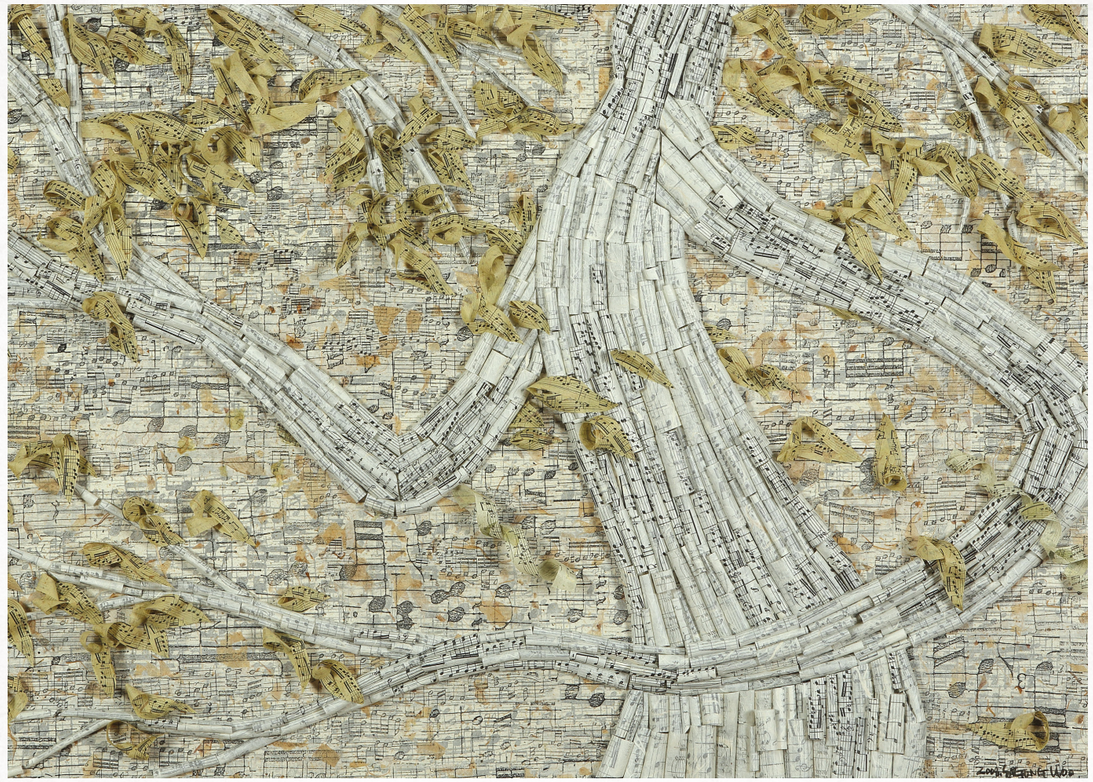


◆ 2017 YTN – 연천, DMZ 평화자전거대회
- 대회일시 : 10월 29일 (일)
  09:00 (출발 09:40)
- 대회장소 : 연천공설운동장
  – 총 연장 100km 구간
- 참가부문 : 사이클 / MTB
- 참가비 : 50,000원
- 홈페이지 : www.rally100.co.kr
- 주최 : 연천군 / YTN
- 참가신청
  – 9월 19일 (화) 10:00 (선착순 5,000명)
  – 참가 신청서와 서약서, 입금내용 확인 이메일 제출 (cnkcst@naver.com)

소리를 담는 작가

사공 우 초대전

Exhibition Invitation



2017. 9.1(금) ~ 10.31(화)

24시간 오픈 갤러리

YTN ARTSQUARE

협찬 _ GALLERY MEE

뉴스는 YTN?
뉴스도 YTN!

대한민국 뉴스채널 YTN이
글로벌 미디어그룹으로 도약합니다.



한국의 뉴스채널 YTN 24

고품격 모바일 방송 YTN DMB

한국 유일의 보도전문 라디오 YTN NewsFM 94.5

한국 최초 과학전문 채널 YTN science

프리미엄 생활정보 채널 YTN life

720만 재외동포를 위한 방송 YTN WORLD

스마트 모바일 라이프의 리더 YTN PLUS

서울의 중심 YTN 서울타워

더 나은 내일을 전합니다. Exclusive Tomorrow YTN